

碩士學位論文

이세보 시조의 다양성과 대상 인식

濟州大學校 大學院



1994年 12月 日

이세보 시조의 다양성과
대상인식

指導敎授 許南春

金 蘭 淑

이 論文을 文學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4年 12月 日

金蘭淑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委員

委員

金相國
許南春
許南春
許南春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濟州大學校 大學院

1994年 12月 日

이세보 시조의 다양성과 대상 인식

指導教授 許 南 春

金 蘭 淑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4年 12月 日

金蘭淑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濟州大學校 大學院

1994年 12月 日

Diversity and Object Recognition
in Lee Se-Bo's Shijo

Nan-Sug, Kim

(Supervised by Professor Nam-Chun, Hur)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ART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1994.

목 차

I. 서 론	1
II. 작품 배경	4
1. 이세보의 생애	4
2. 18세기 시조장르의 변모	8
3. 19세기 시조장르의 변모	13
III. 관심과 주제의 다양화	18
1. 유배시조의 서정성	18
2. 충효시조의 교술성	22
3. 현실비판의 시조	26
4. 주변장르와의 관계	32
IV. 대상인식	36
1. 강호인식	36
1) 이념적 표상	43
2) 미적 표상	46
2. 현실인식 양상	53
1) 복고적 현실인식	53
2) 비판적 현실인식	57
V. 결 론	60
참고문헌	64
ABSTRACT	67

I. 서론

시조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시가문학의 양식으로 한민족의 사상, 감정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고려말에 그 형식이 완성되어 조선조로 넘어오면서 위로는 군왕 사대부로부터 아래로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향유되었던 시조가 20세기 말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큰 의의를 지닌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시조야말로 고대 전통 시가에 그 기원을 두고서 한민족의 사상과 정서를 일관되게 이어 온 자랑스러운 민족문학이라 할 수 있다. 고려말에 형성¹⁾되어 유교문화의 번성과 더불어 조선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 전성기를 이루었으니 형성된 초기 단계부터 대부분의 작가 계층은 유학자들이었으며 시조의 주된 사상적 배경으로는 자연히 삼강오륜을 인륜의 덕목으로 여겼던 유교를 기저로 삼으면서 더불어 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16.17세기의 임.병 양란을 통하여 사회는 물질적인 빈곤과 아울러 정신적 허무와 패배감이라는 충격을 겪게 되었고 또한 양반 계층의 허세와 무능이 노정됨에 따라 하층이었던 평민 계층에게는 새로운 각성과 자각이 일어났다. 이로 인하여 당시의 정신적 가치의 표상이었던 유학이 하나의 관념으로 떨어져 현실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이에 실사구시의 실학이 발흥하게 되었다.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생산력의 증대와 영리성의 추구를 들 수 있으며 농업 분야에서는 이앙법과 견종법의 개발로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켰고 광작 경영과 상품 작물의 재배로 경영의 합리화를 통하여 부를 축적시켜 나갔다. 상업 분야에서도 자유로운 상행위의 발달로 자본이 축적되고 행정 도시 일변도에서 유통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도시가

1) 조운제, 「국문학 개설」, 동국문화사, 1962, P.10.

다수 등장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경제현상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화폐의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자금 자족적인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토대를 만들었다. 사회적인 면에서는 부의 축적으로 인한 신분상승과 토지 집적의 결과로 봉건적 신분 구조가 붕괴되어 갔다. 또한 신분간의 상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세습적이고 폐쇄적인 신분제는 근본적으로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격동기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시조에도 서민들의 생활상이나 사랑의 표현, 현실 비판을 위주로 하는 사설시조 등으로의 변화가 일어나 종래 양반 계층들만의 전유물이 되다시피했던 시조가 유교적 관념론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서민적 삶의 새로운 세계를 그려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작가의 교체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인간적인 삶을 자연스럽게 발로하였으며, 기존의 지나친 형식적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평시조에서 마련한 엄격한 제약이 해이해진 탓에 오랜 유래를 가진 산만한 형식인 사설시조가 발전하게 되었고²⁾ 조선조 후기에 와서는 사대부 시조가 그 창의력을 잃고 수준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18세기에도 사대부들의 풍부하고 다양한 시조 창작에 있어, 김수장, 김천택 등의 가단 형성과는 다른 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음이 근자의 연구에서 밝혀졌고, 이세보 시조가 발견됨으로써 19세기에도 사대부 시조가 창의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그 종말을 고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게 되었다. 사대부 시조가 중인 가객층으로 그 전승폭이 확대되고, 19세기말까지 지속되어 오면서 약 400여년 이상 창작 되었다면 역사적 장르로서의 시조도 많은 변화를 예고한다. 즉 전승폭의 확대와 세계관의 변화가 불가피하였기에 19세기 사대부 시조도 전대의 사대부 시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이세보는 왕족이면서도 영화를 누릴만한 처지

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86, P.298.

는 아니었으며 안동김씨 세도정권의 미움을 사서 수난을 겪었고 고종이 즉위하는 1863년까지 3년 동안 유배생활을 해야만 했다. 그가 유배지에서 남긴 시조가 78수임이 관명되었는데 본고에서는 이 중 유배시조와 현실비판 시조를 주대상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세보 시조에 관한 연구는 시조집 「풍아(大)」 「풍아(小)」 「시가(單)」 그리고 「신도일록」이 발굴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세보의 시조 6首³⁾만이 「시조문학사전」과 「역대시조전서」에 身元未詳, 年代未詳으로 실려 전해져 오다가 1980년 「풍아」집이 발견되고 풍아의 작자를 확정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이세보 시조에 관한 연구는 주로 진동혁⁴⁾, 김인구⁵⁾, 박길남⁶⁾, 박노준⁷⁾ 등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이 외에 진동혁의 「이세보론」(형설출판사, 1983)와 「이세보 시조연구」(집문당, 1983) 「주석 이세보 시조집」(정음사, 1985)등의 저서가 가일층 연구를 촉진시켰다. 이러한 자료의 발굴과 일련의 연구에 의하여 조선후기에 와서 시조담당 계층이 완전히 평민에게로 옮겨졌다는 주장과 안민영이 가장 많은 작품을 창작하였다는 종래의 학설이 수정 되게 되었다. 개인의 작품 창작은 시대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문학의 외적 요소인 시대적 환경은 작품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3) 「이세보시조집」, 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 연구소, 1985, PP.448-450.

4) 진동혁, “시조집 풍아의 작자 연구”, 「한국학보」, 1980.

“시조집 풍아의 시조사적 의의”, 「국어국문학」 통권 86호, 1981.

“이세보 유배시조 연구”, 단국대, 1981.

“이세보 월령체 시조고”, 국어국문학논집, 1981.

“이세보 시조의 연구”, 단국대 대학원, 1982.

“이세보의 기행시조 연구”, 「어문논고」, 단국대, 1982.

“이세보의 애정시조 고찰”, 「동양학」, 단국대, 1982.

“이세보의 철종조 현실비평 시조”, 「동양학지」 연세대, 1982.

5) 김인구, “이세보론”, 「고시조작가론」, 백산출판사, 1986.

6) 박길남, “이세보의 유배시조 연구”, 「한남어문학」, 1992.

7) 박노준, “이세보 시조의 분의식과 정서표출의 두 국면”, 「동양학 제20집」, 1990.

이세보가 살던 조선후기의 시대적 상황과 사회의 흐름은 이세보의 시조 특히 유배시조와 현실비판 시조를 통해 당시의 사회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유배시조와 현실비판 시조를 통해 이세보가 지녔던 근본적인 윤리관과 사상 그리고 성격 등을 고찰해 봄과 아울러, 지방 관아와 당시의 조세제도 등에 대한 비판 내용을 통해 이세보의 세계관이 변화.확대된 면모를 살펴 보겠다. 그리고 유배시조의 중요한 소재.배경인 자연에 대한 의미표상도 아울러 살펴 보겠다. 본 연구의 자료는 「이세보 시조」(영인본, 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 연구소 동양학 총서 제11집, 1985)와 「주석 이세보 시조집」(정음사, 1985)을 기본 자료로 하고 애정 시조도 이세보 문학의 다양성과 변화를 고찰하는 보조 자료로 택한다.



II. 작품 배경

1. 이세보의 생애

이세보는 李端和(1812-1860)의 4남중 장남으로 본관은 전주이씨이며 어머니는 海平 尹씨 사이에 태어났다. 그는 조선후기 정치적 혼란과 부패의 시대를 살다간 문신이며 시조짓기를 생활화한 시조작가이다. 아버지 端和는 세보가 慶平君의 작호를 받은 이듬해에 啓功郎으로서 敬陵참봉이 되었고 朝奉大夫가 되어 金溝縣丞을 거쳐 進安현감, 載寧縣監, 淳昌郡守 職에서 慶平君의 得罪로 인하여 退任되어 報恩 敦諭里로 돌아갔으나 끝내는 회복하지 못하고 1869년(철종 11년)에 타계하였다. 이세보의 자는 좌보이며 어려서부터 영민하였고 성장하여 감에 따라 배움에 남달리 열성이 높았다. 1857년(철종 8년)에는 冬至謝恩正使가 되어 호조참판 任 百秀와 서정관인 寺僕正, 金昌秀를 대동하고 청에 다녀왔다. 그러나 1860년 당시 나이 29세(철종 11년)에 안동김씨 일파에 의한 세도정치의 횡포를 논박하다 그들의 미움을 받아 작호도 빼앗기고 전라도 강진현 신지도로 유배되어 1863(고종 즉위년)년이 되어서야 해배될 수 있었다. 유배의 직접적인 동기는, 세보의 동생인 世翊이 擢第하자 철종은 그에게 翰林을 除授하였고 이런 결과가 세보와 철종이 친한 친분관계에 인한 것이라 여긴 김씨일파에서 이를 반대하자 세보는 金左根과 金汶根의 횡포를 고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김씨일파의 반감을 부추기게 되어 철종으로 하여금 門黜之典에 처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탄핵하여 결국 전라도 康津縣 薪智島에 유배케 하였다⁸⁾. 이로 인하여 풍계군과의

8) 진동혁, 「이세보 유배시조 연구」, 집문당, 1983, PP.54-62.

관계도 끊겼으며, 비변사까지 동원되어 세보가 모은 재산이 부당하게 모여진 것이라 공격하며 모든 것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일까지 행해졌다.⁹⁾ 세보가 받은 유형은 위리안치였는데 이는 죄인이 적소에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가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幽閉 시키는 것으로 중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다.¹⁰⁾ 1860년(철종 11년) 11월6일 서울을 떠나 보름여만에 990여 리의 길을 돌아 신지도에 도착하여 1863년(철종 13년) 12월에 석방 될 때까지 3 년간의 유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작은 구멍 하나로 음식을 넘겨주어 목숨을 부지시켰고, 사시사철 뱀, 지네, 모기, 깔다귀, 빈대 등의 충해로 인한 고통과 해안지방의 독한 안개 등이 평소 병약하고 유배되어 오면서 생긴 병마 등이 세보의 고통을 가증시켰다. 그러나 이런 환경 외적인 요소보다 심적 고통이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의 유배시조 78수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내용은 유배 생활에서의 심적 고통을 그린 것으로 54수가 이에 해당한다. 심적 고통은 思君, 思親, 思友, 兄弟愛, 不忠, 不孝, 貧賤같은 하위 주제에 실려 표출된다. 세보의 유배시조가 다른 유배 시조들과 변별되는 점은, 유배 사실에 대한 은둔도피적인 체념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도피적 체념의 분위기를 자아내지 않고 있다는 점과, 현실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토로하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극복방안을 찾고자 노력한다는 점이다¹¹⁾. 즉 세보는 굳건한 사대부 의식을 바탕으로 한 유교이념의 재확인이 질서 회복을 위한 길이 될 수 있음을 피력하며 현실극복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조선 왕조는 19세기로 접어들면서 國力이 극도로 쇠미해져 갔고 그 주된 원인은 일족의 세도 정치로 말미암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순조, 헌종으로 이어지는 세도정치

9) 「조선정치사(상)」, 한국역사 연구회 정치사반 지음, 청년사, 1990, PP.117-119.

10) 양순필, 「제주 유배문학 연구」, 제주문화, 1992, PP.36-39.

11) 박길남, 「이세보 유배시조 연구」, 「한남어문학」, 1992, P.188.

는 칠종조에 와서 극에 달하였고 관료 및 아전들에게까지도 不正, 腐敗가 극심하여 삼정이 문란해졌으며 災難이 잦고 疾病이 빈번하여 민심은 흉흉해지고 있었다. 당시 농업을 위주로 한 자연경제를 재정적 기초로 삼은 조선조는 국고 수입을 전적으로 농민에게 의존했다. 따라서 재정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민의 부담은 과중하여지고 특히 조선후기 삼정의 문란과 지배층의 가혹한 착취, 세도정치에 의한 정치적 모순, 문호 개방 이후의 급속히 증가된 지출비 등은 농민에게 2중, 3중의 부담을 겹치게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조세를 징수하러 오는 아전들의 횡포는 막심하였다. 그중 삼정의 문란이 극심하였는데 전정인 경우 임진왜란의 참화로 말미암아 많은 땅이 황폐해진 데다가 宮房田, 屯田 등 면세지와 양반, 土豪들이 조작한 은결의 증가는 국고수입을 격감시켜 결과적으로는 무력한 농민들의 부담만 과중하게 하였다. 뿐만아니라 관리들은 황폐해서 못쓰는 땅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심지어는 白地徵稅라 하여 공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일도 있었다. 군정은 장정이 직접 병역을 치르는 대신에 군포를 내는 것을 말하는데 원래 양반, 아전, 관노는 병역이 면제된 데다가 정치 기강이 문란해지자 일부 농민들도 세력가에게 매달려 군역을 기피하는 반면에 무력한 농민을 대상으로 黃口簽丁, 白骨徵布 등의 협잡이 성행하여 전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받았다. 또한 환곡은 빈민의 구제가 목적이던 것이 후기에는 高利貸로 화하여 그 폐단은 삼정 가운데서 가장 심하였다. 지방관들은 그들대로 사리사욕에만 눈이 어두워 아전들의 부정, 부패를 막을 도리가 없었다. 또 봉급을 받지 못한 아전들은 그들대로 자연히 농민들을 착취하고 나아가서는 공금이나 관곡 등을 횡령하는 등 온갖 협잡을 일삼았다. 이런 혼란의 시대에 최제우의 동학이 시의에 맞아 사상운동으로 날로 커지자 관에서는 겁을 내어 1863년에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인다고 최제우를 잡아다가 대구에서 처형

하였으나 그 운동은 그치지 않았다¹²⁾. 세보는 이런 정치, 경제, 사회의 혼란과 부패 시대를 살면서 자신이 처한 삶의 모습을 시조로 표출하였다. 14세에 연안김씨를 맞아 娶妻하였고 취처한 뒤에도 외가에 가서 지낸 적이 많았다. 워낙 家産이 貧寒하여 菽水之供 이 어려울 정도였다. 신도일록에 보면 “십소의 이르러 취처한 후의 몸을 외가의 가 부쳐 이우흐미 만토다. 집이 간난흐미 속슈지공이 어렵고 심산흐미 전묘를 다스릴 슈 업또다¹³⁾”라고 쓰고 있어서 세보의 가정환경이 열악하였고 어려운 처지였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친의 영향을 많이 받아 청렴결백하고 강직한 성품을 지닐 수 있었다. “나는 뫼시고 거느린 것이 조금 평안하니 사사 분수에는 만가지로 다행한 일이나 허다한 근심스러운 것이 가득하게 나오고 백성들의 하소연을 수응하기가 견디기 어려우니 이 사세를 어찌할고...나머지는 분요해서 나열을 못한다.”¹⁴⁾ 이 내용에서 보듯이 부친인 단화는 백성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기가 너무 어렵고 힘이 든다는 괴로움을 아들에게 편지로 쓰고 있어 애민선정에 힘쓴 노력을 읽을 수 있다.

이처럼 善政과 愛民으로 정치를 하는 부친 밑에서 세보의 정신적 사고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하는 비판정신을 깨칠 수 있었다. 세보가 시조를 짓기 시작한 것은 26세로 추정되고 있다. 불행히도 시조창작 연대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 시기 파악이 어렵지만 경평군의 작호를 받고 난 뒤 부친의 任所인 순창에 내려가서 그 곳을 소재로 한 시조를 지은 것이 있어 시조창작 시작 연대를 추정하기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¹⁵⁾ 어릴 때부터 가난했던 세

12) 「자료로 본 한국역사」, 일지사, 1984, PP.45-56.

13) 「이세보 시조집」, 앞의 책, P.366.

14) 진동혁, 앞의 책, P.32.

15) 검산의 봄이드니 화칭홍주유칭청을

무릉의 범나뵈는 간데마다 쫓치로다

동주야 술 부어라 취코 놀게.(풍아 68)

보의 생활이 부친이 관직에 있게 되고 자신도 경평군의 작호를 받게 됨으로써 어려웠던 삶에서 벗어나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시기였다. 그래서 자신의 꿈과 이상을 현실에서 펼쳐볼 수 있는 계기를 맞았다. 또한 이때 청에 冬至正使로 갔다 오면서 지은 시조가 13首나 되니 내용의 흐름으로 보아 이때 비로소 시조창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¹⁶⁾ 유람이나 애정시조는 전 작품이 어느 시기에 지어진 것인가에 대하여 알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다만 유배시조와 현실비판 시조는 신지도 유배생활 중에 지었음을 알 수 있고 이 시기에 유배시조 78수와 현실비판 시조 61수 등 가장 많은 시조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 「詩歌」(單)은 유배생활 이전에 창작한 시조들을 엮어서 만든 것으로 세보의 시조 중 서정성이 강조되어 쓰여진 것들이다. 「신도일록」은 희귀한 국문 유배일기로서 일기와 함께 시조가 수록된 점은 여타의 시조집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특이한 점이다. 신도일록의 주요내용은 유배의 경위와 과정 그리고 신지도에서의 유배생활을 산문으로 기술하고 있어 국문학사상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후에 이들을 묶어 「풍아」(大)로 만들었는데 가곡에 따라 분류하지 않고 시조의 내용 주제에 따라 엮은 점이 여타 시조집들과는 다르다 하겠다.

2. 18세기 시조장르의 변모

17세기는 임.병 양란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수난의 시기였으며, 토지제도의 문란, 농민의 피폐, 농촌 사회의 붕괴, 정부기강의 해이, 관리의 수렴과 탐욕, 계속되

(검산은 전북 淳昌邑의 鎭山을 가르킴)

16) 요동 칠릭니를 탄식코 밭혀보니

망망헌 너른 즐의 치발 좌임 썬이로다

언제나 뒤명의관이 다시 번성. (풍아 4)

는 당쟁과 사화 등으로 조선왕조의 기강이 흔들리고 왕조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17세기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임.병 양란이나 사회적인 대혼란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당시에 있었던 이 농현상이 단순한 전란이나 기근, 한발로 인해 농촌을 떠난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사회계층의 분화와 이동이 전세계적인 추이였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임.병 양란이 일어나게 된 원인으로 이런 외적 환경이 17세기 계층 분화와 이후의 사회변화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보는 시각이다. 임.병 양란과 같은 침략행위는 영토점령이나 단순한 식민지국가 획득에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식량난을 해결하고자 했던 움직임에서 비롯되었다. 사실 기후학자들은 1645-1715년 사이 전세계의 심각한 기후변동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관찰된 극광이나 코로나의 수치가 현저하게 줄었고 나이테에 함유하고 있는 탄소14의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였던 점으로 보아 태양 에너지의 감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태양의 극광이나 코로나는 태양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들의 양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태양활동의 부진을 의미한다. 당시 조선 경제의 구조는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 사회였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기후의 변화는 농작물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17세기에 있었던 흉작으로 1590년대와 1620년대 및 30년대, 그후 1650년대는 거의 반세기에 걸쳐 흉년이 들어 최악의 상태였다는 점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와 시기를 같이하여 유럽에서나 중국 등지에서의 흉작도 1590년대, 1620년대, 1640년대, 50년대 그리고 1690년대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¹⁷⁾ 비록 신기술의 도입 즉 사비 이양법의 발달, 광작 등이 일시적으로 농업 생산량을 증대시키기는 하였지만 극심한 흉년으로 17세

17) 나중일, 「세계사를 보는 시각과 방법」, 창작과 비평사, 1992, P.72.

기 말에는 생산량의 감소를 보였다. 당시 이러한 흉년은 주로 가뭄, 수해, 냉해 등에 의해 농민들은 생존 위기적 상황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 토지에서 쫓겨나가거나 스스로 버리고 유랑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들 유랑인들은 도적떼로 변하기도 하였고 도시로 몰려 상공업의 발달을 유도하는 새로운 계층으로 자리잡게 되어 조선후기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전대의 양반 사대부들의 한정된 향유층의 전유물이 되다시피 했던 예술사에도 중인, 서민, 하층 유랑인들이 참여하여 예술자체의 내용, 형식과 예술 수용의 미적 태도에 대단한 변화를 가져왔다. 국문시가 가운데서 시조는 중인 가객층 혹은 중간계급으로까지 담당층이 확대됨에 따라 중세사회에서 요구하는 규범적 미학에서 탈피하기 시작하였고 시민현장의 구체적 경험과 본능적 욕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형식의 사설시조를 발생시켰다. 한편, 중인 가객들은 가단활동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음악, 문학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후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예술은 점차 상품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어 상층 사대부와 중인 부호층을 소비자, 감상자로 확보하게 되면서 이들에 의한 물질 기반의 마련과 더불어 가객, 악사 등의 하층 예능인들의 주체의식이 고양되었고 봉건사회의 신분적 구속에서 벗어난 자율적인 예술세계의 구축을 회구하게 되었다. 18세기 사대부 문학도 계층분화의 현상을 반영하여 계층에 따라 변별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사대부 작자층은 노.소론계 중앙 관료층과 在地士族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이들의 시조 작품 구성비를 살펴보면 노.소론계 중앙 관료계층은 21명의 작가가 218수의 작품을 쓰고 재지사족은 9명의 작가가 96수의 작품 창작에 그쳤다. 재지사족의 작품이 각 사람마다 고루 쓰여진 반면 노.소론계 중앙 관료층의 작품은 권섭과 이정보의 작품이 174수로 약 80%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이들은 단순한 감정을 표출하는 정

도의 창작이 아니라 시조 작가로서 뚜렷한 의식적 지향점을 가지고 창작 활동에 임했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 노.소론계 중앙관료계층의 시조 작가들은 자연을 유흥과 풍류의 대상으로 보았다. 주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도를 보이고 있는데 강호한정 뿐만 아니라 세태경계와 풍자, 애정, 질병과 늙음, 호기, 기개, 풍속, 송축¹⁸⁾ 등으로 나타난다. 이들 중 권섭과 유승, 이정보의 작품을 통해 18세기 사대부 시조의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 보겠다.

1) 이 바 노래 흥 곡도 장진주로 불려스라
압 집의 술이 너고 일촌이 도화 | 로다
진실노 춘풍이 디나 곳 가면 노라 불 세업세라.(권섭)

너은 술 걸러내오 내 불으면 네 마출다
풍광이 브진 흥니 녹음방초 잇니마논
아마도 일춘쇼화를 못내 보아 흥노라. (권섭)

2) 간 밤 오던 비에 압니희 물 울노고야 UNIVERSITY LIBRARY
등 검고 술진 고기 버들 녀식 울노고야
아희야 그물 너여라 고기잡기 흥자서라.(俞崇)

3) 썸에 님을 보려 버기에 지혀시니
半壁殘燈에 鶯禽도 차도 찰샤
밤 巾만 외기러기 소리에 줌 못일워 흥노라. (이정보)

4) 썸으로 差使를 삼아 먼디님 오게흥면

18) 조동일, 앞의 책, P.279.

비록 천리라도 瞬息에 오련마는
그 님도 님 둔 님이니 올쫑말쫑 후여라. (이정보)

1)은 권섭의 작품으로 자연이 풍류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바'라고 상대를 부르고 나서 장진주 한곡조 부를 것을 부탁하며 술 익고 도화꽃이 만발하였으니 때가 지나기 전에 놀아 보자고 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객의 대답은 술이 익어 부르면 때 맞춰 오겠으나고 묻고 우거진 숲속에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으니 봄을 즐겨 보자고 한다. 주인과 객이 하나가 되어 풍류스러운 한 때를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다. 2)는 간 밤에 내린 비로 앞 내가 붙어 살찐 고기가 버들에 엉켜 있는 정황을 그리고 있다. 종장에서는 아희를 불러 고기 잡을 그물을 내어 오라고 말함으로써 비내린뒤의 냇가의 풍경을 회화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는 자연 속에서의 삶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직접 체험을 통해 얻어지는 자연의 풍류와미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자연은 修己나 도학자의 공간에서 벗어나 자연의 풍류를 즐기는 공간으로 전환하고 있다. 전대의 이념적인 규제로부터 벗어난 시인들은 자연 속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인적 정감을 표출할 수 있었고 이런 양상은 제한된 주제에서 벗어나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3)은 님을 만나고저 하나 만나지 못하고 혼자 지내게 되는 쓸쓸함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님을 만나고저 하는게 아니라 꿈속에서 보고자 하는 성향은 17세기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애정의 관용적 표현이다. 4)의 시는 3)의 작품의 내용과 유사하여 님을 만나는 공간이 꿈이라는 점에서는 3)의 시와 같지만 좀더 현실적 공간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그 현실감은 님이 있는 한 여인을 사랑한다는 서민적 감정으로 착색된 애정세태를 보여줌으로써 상당히 개방된 의식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작품은 현실생활의 고민에서 비롯되어 창작이

된 게 아니라 벌얼층으로서의 기득권을 누리고 풍류를 즐기는 가운데 감흥 발산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¹⁹⁾ 결국 18세기 사대부 시조의 양상은 자연을 유희와 풍류의 대상으로 파악하였고, 세태경계와 애정시조 등 제한된 주제에서 벗어나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위백규의²⁰⁾ 작품에서는 자연을 관념의 대상이 아니라 주자학적 이념의 표현에서 벗어나 함께 일하는 노동의 공간으로 보고 있다. 위백규 자신도 삶의 현장에 존재하는 한 구성원이며, 조동일의 지적처럼 길가다 우두커니 쳐다보는 손님의 입장이 아니라 땀흘리며 일하는 노동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자연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의 변화가 19세기 사대부 시조에 이어져 이세보의 시조에서는 자연에 대한 풍류 시조 및 현실비판의 시조, 애정 시조에 이르기까지 주제의 다양화로 이어지고 있다.

3. 19세기 시조장르의 변모

19세기 예술사의 변모양상은 이미 18세기에 전개 되기 시작한 “자의식의 발로”에 힘입어 사대부적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자신들의 예술적 가치를 획득하려고 노력했던 일군의 움직임에서 비롯된다. 시조사에 나타나는 이런 움직임의 특징은 전문적인 고급예술과 대중적이며 통속적인 예술의 분화이다. 전자는 고도로 체계화된 가집과 더불어 박효관, 안민영으로 대변되는 계열이고, 후자는 남훈태평가 계열로 집약할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적인 핵심과제는 예술 혹은 예술가들이 물질기반을 확보하여 중세적 예속과 신분적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창조 주체로서

19) 조동일, 앞의 책, P.279.

20) 위백규에 관한 연구는 임주탁의 “위백규의 농가에 관한 연구”, 『관악어문학』 제15집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독립하는 근대성의 획득을 의미하며 또 그것은 곧바로 중세적 미의식을 벗어나 새로운 사상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해내는 예술 내적 차원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와 달리 19세기에 성행한 평시조는 18세기 평시조사가 보여준 완만한 변화를 나름대로 흡수하고 있는 양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²¹⁾ 이런 19세기 시조사를 대표할 수 있는 시조작가로 조황과 이세보를 들 수 있다. 조황은 평시조를 통해 자기 사상을 일관되게 표출하였는데 성리학적 이념을 고수하는 이로써 밀려드는 서학에 맞서고, 내부적으로 부패해 가는 봉건현실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조황의 대표적인 문집인 「삼죽사류」에는 111수의 작품이 실려있는데 지금까지는 지나치게 교술적이라는 이유로 별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 구성은 人道行-箕裘謠-酒老園擊壤歌-乘露吟-訓民歌 등으로 이루어졌다. 조황은 철저한 유교주의자로서 당시 밀려 들어오던 서양 세력이나 천주교에 대하여 상당한 위협을 느꼈던 듯하다. 즉 유교는 마땅히 지켜 나가야 할 만대 불변의 常道인 반면 천주교는 배척해야 할 사악한 것으로 치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²²⁾ 비록 조황의 작품 소재를 성리학적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해서 진부하다는 평을 받기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강호자연이나 연군을 매개로 하여 사대부의식을 표출한다는 면에 해당되는 내용이지 조황의 세계관 자체를 진부한 것으로 단언할 수는 없다.²³⁾ 조황은 성리학적 이념을 철저히 고수하면서도 자신의 이념이 현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몇 편의 현실비판류의 내용을 담은 작품을 창작하기도 하였다. 또한 '酒老園擊壤歌序'를 보면 우리말에 대한 애정과 우수성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21) 고미숙, "19세기 시조의 전개 양상과 그 작품세계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3, PP.255-258.

22) 조규익, "삼죽 조황의 시조 연구", 「승실어문」 제5집, 1988, PP.49-54.

23) 고미숙, 앞의 논문, P.220.

“그사람이 다시 묻되 그대의 言志(시)를 보니 아송을 버리고 唐.宋을 따랐고, 그대의 永言(노래)을 들으니 우리말을 섞어 음률에 맞추었으니 調와 格에 있어 大方家의 비웃음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말하기를 노래는 순임금의 쟁재에서 시작되었고 시는 주나라가 東遷하면서 사라져 시세에 따라 융성하고 침체했으니 초사·당률·吳歎·越謠는 士性으로 인하여 서로 다르다. 나는 우리나라 사람이니 지금 사람으로서 지금 노래를 할 뿐이다. 어찌 서민으로서 서민의 말을 면할 수 있겠는가”²⁴⁾ 라고 쓰고 있다. 이는 조황이 시조 창작의 당위성을 개진한 글이다. 국문으로 시를 쓰고 음률에 맞출 경우 調나 格이 뒤쳐진다고 생각하던 당대 통념의 부당성에 대하여, 시가의 통시적 변천을 예로 들어 반박하고 있어²⁵⁾ 그의 시적 자질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朝廷에 朋黨論이 人才업술 張本이요
 科場에 末流弊는 선비 업고 말리로다
 後生에 志丁學현들 놀을 조촉 드르리오. (삼죽 49)

이는 조정의 당파 싸움과 과장의 말폐를 비판하고 후생들이 학문에 뜻을 둔들 누구를 따라 하겠느냐고 한탄하는 내용이다. ‘乘桴吟’에 이르러 조황은 자신의 이념이 현실과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開闢來 寅會初에 乾父坤母 交泰할제
 五行아 네 理氣로 各正姓名 허라시니

24) 或復問曰 觀子之言志 捨雅頌而從唐宋 聽子之永言雜 諺語而協音律 於調於格 得無見陋於大方家耶 余曰歌始唐載 詩亡東遷隋世級而降殺 楚辭唐律吳歎越謠 因士性而矛盾 余東人也 今人也 烏其歌 能免齊人之齊語乎.

25) 조규익, 「조선조 시문집 서.발 연구」, 숭실대학교출판부, 1988, P.162.

스롭의 저마다 바든거시 是日 乘輿로고나. (삼죽 82)

위의 작품은 조황이 지키고자 했던 성리학적 세계관이 19세기 현실상황에서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를 철저히 보여주고 있다. 19세기초 세도정치가 들어서면서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지만 그에 비례해서 천주교는 더욱더 세력을 확장해 갔다. 이러한 사도의 확장은 봉건적 내부의 갈등과는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다. 다른 한편에서의 좌절은 경제적인 파멸을 들 수 있다.

百里外 閒曠地에 火田이나 허라 가니
추창타 이 山川에 다시 오기 어려왜라
그스이 邪黨이 還集허니 우리 影堂 無事허라. (삼죽99)

향촌에서 경제적인 기반을 상실하고 화전을 하러 떠나는 자신의 처지를 솔직히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농사를 지어 치산하거나 그것을 통해 물적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는 별반 없고 오로지 자식들에게나 백성들에게 성리학적 이념을 전파하겠다는 일념으로 일관하고 있다. 화전을 붙이러 가야 할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사당으로 몰려드는 이들로 인해 사당이 무사할까를 염려하고 있다. '병이음' 다음으로 훈민가 10수를 싣고 있는데 구체적인 대상이 부재한 상태에서 실천윤리로서 오류를 제시할 때 그것은 당위를 상투적으로 재확인하는 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의 훈민시조의 추상적 경직성 역시 성리학적 이데올로기의 퇴조와 19세기 향촌 사족의 공허한 외침을 보여주는 한계를 지니기도 한다.²⁶⁾ 세보의 작품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볼 수 있다.

26) 고미숙, 앞의 논문, PP.228-229.

1) 근고하여 심은오곡 날가무리 근심터니
유연작운 오신 비의 피는 이삭 거룩하다
아마도 우순풍도는 성화신가.(풍아 60)

2) 그터 휴수 얼마 현고 니 농스 지은거슨
토세 신역 밋친 후의 벗십이나 남을는지
아마도 다 하고 나면 과동이 어려. (풍아 63)

1)은 애써서 심은 곡식이 날이 가물어서 걱정하다 때 맞춰 내리는 비의 고마움을 성덕으로 귀걸시키고 있다. 그러나 2)에서 보듯이 애써 지은 농사를 세금으로 받치고 나면 남는게 없다는 어려운 현실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타개할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보다는 1)의 작품에서 보듯이 임금의 성덕을 칭송하는 일념으로 이어지고 있어 조황이 보여주는 사대부의 공허한 외침을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조황과 이세보의 작품이 이런 한계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전대부터 이어져 온 평시조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주제표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9세기 사대부 시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 이세보 시조에 나타나는 다양한 주제표현과 대상세계에 대한 관심의 확대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III. 관심과 주제의 다양화

15.16세기 시조는 주로 서정적인 내용을 주제로 담고 있고, 17.18세기에 넘어 오면서 현실의 문제가 작품 창작의 소재가 되면서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 양상은 이휘일의 '田歌八曲'과 위백규의 '農歌九章' 등에 나타나는데, 자연에서 비롯되는 서정적인 감정의 표출 뿐만 아니라 자연을 바라봄의 대상이 아니라 노동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세기 세보의 시조는 전대에 비해 현실비판의 시조까지 다루어 주제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경향은 전대의 모든 양식을 수용하고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미 시조 장르가 양식화 단계에 접어들어 쇠퇴기를 예고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본 장에서는 세보의 작품을 유배시조의 서정성, 충효시조의 교술성 및 현실비판의 시조와 주변장르와의 관계들로 나누어 살펴 보겠다.

1. 유배시조의 서정성



세보의 유배시조 78수는 대개가 부모에 대한 불효와 정을 그린 내용, 군왕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 君恩에 감사하고 이를 못잊어 하는 충정을 읊은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그 외에는 조선조 초기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온 강호가도를 그린 내용, 기타 자연이나 병충해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우선 서정적인 내용을 담은 작품을 통하여 작가의 의식과 사상적 배경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보는 다른 어떤 작가보다도 다양한 소재로 가장 많은 수의 작품을 남겼으면서도 유배로 인한 서정적인 감정의 발로나 자연을 벗삼아 즐기는 안빈낙도의 작품

은 충효 시조에 비해 많지 않다. 그중 몇 편의 작품을 통해 관조적인 자세로 자연을 바라보는 서정적인 감정의 표출을 찾아볼 수 있다.

- 1) 초신이 무용하여 강호의 누엇쓰니
 빅구로 이웃삼고 어옹으로 화답이라
 엇지타 꿈결 세상의 말리 만어. (풍아 159)
- 2) 세상의 풍류쇼극 모도다 어딴간고
 희우적막무인어흐니 시유희선단적성을
 두어라 무한경기를 제 뉘 알니. (풍아 213)
- 3) 던던반축 못 이룬 잠 사오경의 닭이 운다
 시비를 열고 보니 눈이 오고 달리로다
 엇지타 유백산촌의 기는지저. (풍아 394)

1)은 할 일 없이 강호에 누워 갈매기를 이웃삼고 어부와 말 나누는데 꿈결같은 세상에 말이 너무 많다는 내용이다. 이 시조는 강호한정에서 늘 찾아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유배지에서 流刑囚와 벗하며 지낼 수 있는 동물로 갈매기는 자주 등장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2)는 세상의 풍류객들이 모두 어디 갔는가? 적막하고 사람하나 없어 때때로 海仙의 단적성 소리만 들리는구나. 두어라 무한정계를 그 누가 알겠는가 하는 내용으로 유배지인 신지도에서의 한가한 경치를 그리고 있다. 3)은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데 사오경이 되어 닭이 울고 문을 열고 보니 눈이 오고 난 후 달빛이 비치는데 어찌하여 아무도 없는 산촌에 개는 짖는가 하는 내용으로 초장과 중장에서는 눈오는 날 밤에 잠 못이루고 뒤척이다 마당에

내린 눈을 보며 純白의 景物에 마음을 빼앗기고 눈 갠 후 고요한 달빛에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雪片의 냉랭함이 빠속에 스미고, 개 짖는 소리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심경을 표출했다. 백설과 고요히 내비치는 달빛의 회화적인 풍경은 고요함을 던져주고, 여기에 개 짖는 청각적인 소리가 고요함을 가중시켜 주고 있다. 이상의 시조들은 유배지에서 고독감과 한가한 경치를 비, 백구, 短笛聲, 닭, 눈 등 자신의 삶 주변에서 늘상 대할 수 있는 자연물이나 동물의 소재들을 통하여 자신의 심경을 충분히 묘사하고 있다.

유배문학이란 유형인이 유배지에서 겪은 유배적 사실과 직접체험의 감성적 내용을 문학화한 것이라²⁷⁾한다면 1)의 초장과 중장에서는 자신의 심경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종장에서는 자신과 분리된 다른 세계에 대한 대립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자신이 기거하는 공간이 고독과 적막으로 한적한데 비해 다른 세상은 말이 많은 세상이라는 대조적 표현을 통하여 세보 자신이 유배지에 온 죄인이라는 현실적인 분리를 그린다. 그리고 속세와 자신을 분리시킴으로써 자신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자신은 비록 죄인이기는 하지만 현실 세상과의 분리를 통하여 자신의 죄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 의해 비롯된 것이며 이로써 자신은 결백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신도일록을 보면 “다가 도정의 계관^{호미} 나망의 걸넛^{또다}. 호천망극^{호신} 지우헌 은혜 특별이 한 목숨을 꾸이 스브다 가으세 보넛^{또다}. ^호날를 원망^{호며} 스롭 허물 ^호기를 다텔 지 감히 ^호리요”²⁸⁾라고 쓰고 있다. 자신이 비록 죄를 지어 현실과는 단절된 공간에서 지내지만 의식만큼은 여전히 궁중에 있는 임금에게로 향하고 있어, 현실생활과의 완전한 분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하늘을 원망하지도 않고 다른

27) 박성의, 「한국문학 배경연구」, 국어국문학총서, 이우출판사, 1980, P.57.

28) 「이세보 시조집」, 앞의 책, PP.364-365.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도 않겠다는 의지를 통해 자신의 결백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작품을 통하여 세보는 단절된 공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심경을 그렸는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한양이 얼마관되 소식을 둔년천고
일도강남구위각이 벽의북두망경화를
엇지타 세상의 물도 만코 되도록 만어. (풍아 162)

유가적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세보의 의식은 자신이 기거하는 현실세계와 임금이 계신 한양이라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정함으로써 현실의 어려움을 이것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였다. 한양이라는 또 다른 공간에 있는 임금만이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구원해 줄 수 있으며 현실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부정적 현실을 비판하고 왕에게 조언함으로써 현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처지에 있는 시인이, 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바라고 오로지 왕이 있는 곳으로의 복귀만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현실 인식이 둔화된 결과로 보기도 한다.²⁹⁾ 이는 제 3장에서 보게 될 세보의 현실인식의 시조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는 것으로 조선조 사대부 계층이 가졌던 관념적 세계관에서 탈피하지 못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상 세보의 시조중 유배시조의 서정성에서는 조선후기라는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나 대상이 다른 유배시조나 사대부 시조의 전통을 잇고 있다. 다만 조선조 초기부터 꾸준히 있어온 안빈낙도의 생활관이나 자연에의 안주 등에

29) 최상은, "연군가사의 짜임새와 미의식", 『반교어문연구』 제5집, 반교어문학회, 1994, p.120.

시는 조금 벗어나 작품의 소재가 대부분 자신의 생활주변에서 대할 수 있는 것들을 다루고 있다. 또한 이런 자연물을 통해 서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군왕에 대한 믿음을 보임으로써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 하고자 한다. 결국 유배시조의 서정성에서는 자연에 안주하고자 하는 은둔적 체념보다는 대상을 통한 현실극복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2. 충효시조의 교술성

세보는 사대부의 가문에서 자라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교적 근본 사상을 떠날 수가 없었다. 그가 유배지에서 창작한 78수의 시조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충과 효에 관한 내용이다. 신분제의 변화와 천주교의 소개, 실학사상의 유포로 사회 전반에 걸쳐 다대한 변화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조 초기부터 강조되어 온 충·효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노력하였다. 유배지에 오게 된 죄인이면 누구나 군왕에게 자신이 지은 죄를 뉘우치고 그나마 죽지 않고 유배에 처하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기며 충성을 맹세했던 것은 유배시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다. 효에 관한 의식도 우리 시조사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부분이다. 더욱이 교훈이나 도덕적인 시인 경우에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불효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의식은 시인만이 갖는 독특한 영역이라기 보다는 모든 사람이 가지게 되는 공통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유독 세보의 유배시조 중에 충과 효에 관한 교술적인 작품수가 많은 것은 이미 잃어버린 사회윤리를 바로 세워보고자 노력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양반이 아니면서도 재물이 있으면 양반이 되고, 부모 자식간의 정이 메말라가는 사회현실에서 비롯되는 서글

품을 자신의 처지와 견주어 표현하고 있다.

- 1) 북당의 학발부모 타향의 날 보시고
이죽지정 그린 화포 의문의려하시련이
아마도 불효 두주난 나뿐인가. (풍아 172)
- 2) 숙위턴이유추히고 북당허부의문경을
포옥지독도싱감은 호일귀령보티평고
아마도 금세불효는 나뿐인가. (풍아 201)
- 3) 형극에 몸을 두어 청춘을 허송하니
부모봉양 언제 하며 심산작업 어이하리
아마도 금세디악은 나뿐인가. (풍아 207)
- 4) 일구월심 밋친 한은 부모동심 심각이라
한습취디 눈물지고 눈물지다 한습이라
듀어라 슈신당괴호야 이디티왕. (신도일록 90)

세보는 장남이고 집안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편벽된 사랑을 받아왔고 그로 인해 자신이 유배를 가게 되는 사실을 더욱 큰 불효로 여겼다. 1)은 부모로 하여금 유배지에 처한 자식을 노심초사 기다리게 하고 있으며 2)에서 처럼 말없는 짐승마저도 부모 공경하기를 다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되어 이를 행하지 못하니 더 큰 죄임을 토로하고 있다.

윤리시조에 나타나는 부모 봉양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부모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것이요, 그 다음이 맛있는 음식과 의복을 제때에 헤드리는 것이며 세째가 약을 달여 드리는 것이며 다음이 문안을 올리는 것 등을 꼽을 수 있다.³⁰⁾

30) 김윤경, 『한국 시가 문학의 유학사상 연구』, 1983, PP.58-59.

그러나 세보의 유배시조는 위와 같은 어떠한 형태의 효도 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더욱 안타까워 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더욱이 3)에서 처럼 장남이 대를 잇고 가문을 계승하는 일은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조상에 대한 예를 갖추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마저 실현하지 못함을 통탄하고 있다. 그러나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국 당시부터 사대부 의식으로 자리를 잡아온 修身, 齊家, 治國의 이념만이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구원할 수 있는 길임을 말함으로써 세보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유교적 신념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 1) 다투어 헤여보니 명년이 삼십이라
 유구어병 왜모르고 천니거적 무삼일고
 아마도 충언이 억이나 이어행인가. (풍아 179)
- 2) 타향의 병이드니 의약을 뉘라 알니
 고원동방천니외요 후일증념헝노란을
 아마도 의약이 불여성상우로. (풍아 181)
- 3) 고신도 성상민이라 비나이다 성상우로
 무시의 나리난 우로 고신도 비나이다
 심당운슈요 스당결초호오리다. (풍아 192)

세보의 유배시조 78수 중 군왕과 관계된 시조는 18수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이런 사실은 세보 자신이 은연중 忠을 제일로 삼고 실천해야 할 윤리임을 피력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임금을 모시고 지냈던 일들이 눈앞에 어른 거려 생각은 하면서도 볼 수 없으니 병이 더욱 깊으나 浬恩에 힘입어 돌아가는 날 반드시 結草啜菽 하리라는 다짐을 해 보이고 있다. 1)은 자신의 유배는 충언을 하였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오늘의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바른 말은 듣기에 거북하

지만 행함에는 반드시 이로움이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2)와 3)은 임금이 내려 주는 은혜만이 자신의 병을 고치고 구원해 줄 수 있는 수단이며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라는 확신을 보이고 있다. 사실 당시 안동김씨의 세도로 인하여 철종의 권한은 땅에 떨어졌고 왕가의 한사람인 세보에게마저 유배라는 형극을 내려야했던 입장이고 보면 임금의 은혜를 바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보가 하해와 같은 임금의 성은만이 자신을 구하고 어려운 현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이미 기울어버린 왕조를 일으켜 세워 보고자하는 노력의 하나로 보인다.

당쟁과 사회로 인하여 유배로 점철된 조선후기인 만큼 유배시조나 가사에 나타나는 戀君의 주제의식은 개국당시 儒家사상을 고취시키고 그 기반을 확립하고자 했던 사대부들의 의식을 일관되게 반영한다. 그 이후 사대부 지배체제가 와해되어 가고 서민층의 각성이 활발해짐으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왕을 위시한 관료층은 그 변화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려는 보수적 경향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戀君의 노래에 대한 대표적인 작품인 卞偉의 '만분가'와 鄭澈의 '사미인곡'속미인곡과 이진유의 '속사미인곡' 등으로 이어지는 작품에서 조선후기에 나타나는 사대부 의식 중 忠의 개념을 엿볼 수 있다. '사미인곡'속사미인곡'에서는 옥황상제를 왕에 비유하였고 왕을 신격화 함으로써 자신이 처해있는 실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나타내게 됨으로써 유교이념의 왜곡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왕에 대한 충성은 당연한 것이지만 왕을 보좌해야 할 사람으로서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³¹⁾ 이들보다 훨씬 뒤에 나타난 이세보의 忠에 관한 시조는 다음 장에

31) 최상은, "연군가사의 짜임새와 미의식", 『반교어문연구』 제5집, 반교어문학회, 1994, PP.119-120.

서 언급할 현실인식의 시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자신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에서의 탈피는 오로지 왕에 의하여 해결이 되는 것이며 이를 자신의 뜻으로 보답하겠다는 조선 전기의 사대부적 관념론이 강하게 보인다. 시기적 상황으로 보아 이미 왕조는 기울었고 새로운 사조가 들어오는 역사적 배경속에서 이처럼 강한 신념을 보여주는 것은 세보가 왕가의 한 사람이면서 강직한 성품을 지녔던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이 처한 현실의 어려움을 타개할 방향을 허물어져 가는 유교적 이념의 재건에서 찾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보의 충효시조의 교술성에 나타난 사상은 개국 당시 양반 관료들을 중심으로하여 꾸준히 이어져 온 유가사상을 바탕으로 관철되고 있다. 시대적 상황과 분위기로 보아 실학사상이 만연해 있고 천주교의 도입 등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대부 이념을 담은 많은 충효시조를 남겼다는 점에서 시대상황에 민감하지 못했다는 평을 받기도 하지만 개국 당시의 교훈시조나 그 이후의 도덕가 등에서 처럼 사람이 본디 지켜야 할 항목을 차례로 나열하여 꼭 지켜야 한다는 식의 서술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을 통한 충의 개념을 말하고 있어 충.효에 대한 새로운 재인식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3. 현실비판의 시조

시조는 예사 노래가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마땅한 자세를 가다듬고 되돌아보는 틀이다. 속세에서 물러나 강호에 은거한다고 자처할 때 정신적인 위안을 얻고자 하는 것을 가장 큰 구실로하며 임금을 생각하고, 나라를 근심하며, 윤리적 교

화를 펴고자 하는 의지도 감당해야만 하였다. 이런 몇 가지 성향은 작가에 따라 시대적 여건에 따라 달리 선택되었고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조선후기 사대부 시조 역시 사대부 의식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이미 마련된 노선에 따라 창작에 임하기 마련이다. 농촌이 피폐해서 농촌에 은거해도 편안할 수가 없었으며 정권 다툼에서 밀려나 다시 진출할 길이 막힌 사대부는 자기 위치 때문에 더욱 갈등을 느꼈지만 바로 이런 점에서 강호가도를 잇는다고 표방해서 몰락을 막기도 하였다.³²⁾

그러나 유배자인 경우는 그 양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조선조의 역사가 당쟁과 권력투쟁으로 점철된 정치사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와중에 집권층에 대한 비판적인 언행이나 시 한 구절, 한 편의 작품 등으로 인하여 유배를 가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러나 이런 유배의 상황에서 유배를 받아 들이는 입장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이전의 상태로의 복귀만을 꿈꾸며 吟風弄月과 강호가도로 일관된 생활을 하는 경우와 이와는 달리 유배로 말미암아 자신이 유배를 당하게 된 현실사회의 문제점과 모순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유배지에서의 하층민의 어려운 생활을 경험하고 현실에 대한 자각을 민중의 아픔으로 부각시키는 부류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대부분의 유배자들이 적소에서 충군과 해배만을 기다리며 창작 활동을 한 경우이고 후자인 경우는 정약용처럼 유배지에서 보다 더 많은 현실인식의 시를 쓴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세보는 君恩에 감사하고 해배 되리라는 믿음을 보이는 작품과 현실에 대한 자각을 담은 두가지 특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양반으로서 실학의 대가이며 18년간이나 유배 생활을 했던 정약용의 현실인식과 이세보의 현실인식 양상을 살펴 보겠다.

32) 최진원, 「한국 고전시가의 형상성」, 성균관 대학교 대동문화 연구원, 1988, P.170.

다산 정약용(1762-1836)은 복학을 주장하였고 빈부의 차별로부터 사농공상, 문벌, 지방, 문무, 관직 청탁의 차별까지 모든 차별적 제도 및 풍습 철폐를 주장하였다. 문학작품을 통해 道를 구현하려 했던 것이 조선조를 일관하는 載道的 문예 의식이었다고 한다면 구현해야할 道의 지향은 시대나 개인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조선조 개국 초기부터 정도전은 仁義禮智의 사단과 부자의 慈孝 등 유교적인 덕목을, 그 후 사림파는 심성수련과 인격적인 완성에 두었다. 실학파는 개인적인 수양을 넘어서 治人の 차원에 중점을 두었고 이용후생과 실사구시를 중심으로 삼았다. 정약용은 “ 무릇 시의 근본은 부자나 군신, 부부의 인륜을 밝히는데 있으며 더러는 그 즐거운 뜻을 선양하기도 하며, 더러는 그 원망하고 사모함을 도달하게 하는 데 있다. 다음은 세상을 걱정하고 백성들을 궁핍히 여기며, 항상 무력한 사람들을 들어 올려 주고, 無産者를 구휼하고 싶어 방황하고 안타까워서 그냥 두지 못하는 그런 간절한 뜻이 있어야 바야흐로 시가 되는 것이다”³³⁾ 라고 밝힌 것처럼 자신이 시를 쓰는 창작 태도는 憂民恤民과 傷時憤俗의 입장에서 쓰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산은 삼정에 관한 농민의 어려움을 여러 수에 걸쳐 표현해 내고 있는데 ‘哀絶陽’에서 軍政을 모면하기 위한 비참한 현실을 그리고 있다.

시아버지 상당해 소복입고 아이는 벌거숭이인데
삼대의 이름이 군포에 실렸네
관가에 호소했으나 범같은 문지기 지키고 있고
리장은 호통치며 마굿간 소를 몰고갔다오
남편은 시칼 들고 방에 드니 피가 낭자하여라
스스로 한탄하길 아일 낳았기 때문이라네³⁴⁾

33) 『與猶堂全書』, 增補與猶堂全書 卷21, 景仁文化社, 1970.

34) 『與猶堂全書』 卷5 采菴, 앞의 책, P.389.

죽은 부모와 갓난 어린 아이에게까지 군포를 바치게 하는 군정의 폐단을 견디다 못해 자신을 자해하는 남편의 모습에서 당시의 군정이 얼마나 지독하였는가를 추측할 수 있다.

다산은 사회 전반에 걸친 부정과 부패를 고발했고, 中國之事를 즐겨 쓰는 일을 비판하여 「삼국사기」 「고려사」 「정비록」 등에서 고사를 채취하여 시에 써야 함을 주장하여 국어의식을 높이 평가해 보였다. 당시 최고의 문장가이며 실력자이기도 했던 그가 우리말 사용을 강조하였던 점은 주체의식의 발로였으며 우리 문화의 독자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의식이 담긴 작품을 쓰고 우리의 것을 주장하였지만 작품창작이 한글표기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한계를 지니기도 한다. 이에 반해 세보는 유배가는 과정을 기록한 신도일록을 비롯하여 「풍아」의 작품들을 정약용의 작품과는 달리 한글 표기를 하고 있어 그 의의가 더욱 크다 하겠다.

- 1) 탐학슈령 드리보소 입시날 칠스강을 쫓알고 흥엿쓴가
성밧글 찌나셔면 어이 그리 실진한고
저린 병의 먹는 약은 신농씨도 모로련이. (풍아 297)
- 2) 이쇼능장 금현후의 후쥬 잡기 엄단호쇼
스지가 성헌놈이 무항산위유도일
아마도 이덩풍속한 년후의 관장인가. (풍아 321)
- 3) 유한헌 저창곡을 가작도 분슈업다
만석의 만냥이요 천석의 천냥이라
아마도 선치는 엄평 두조인가. (풍아 325)
- 4) 각귀기가후여 보니 반도반미 황당하다

두섬이 열말되고 한섬이 닷말이라
무상헌 희식고주 엄장중치 못흐신가.(풍아 295)

- 5) 저백성의 거동보쇼 지고싯고 드러와서
한섬 쌀를 밧치라면 두 섬 쏘리 부득이라
약간 농수 지엿슨들 그 무엇슬 먹즈흐리. (풍아 296)

1)은 수령이 되기 위하여 선치하겠노라고 칠사강을 외우고 나오지만 성밖을 나서는 순간 그 모든 내용은 잊어버리고 오로지 탐학과 착취만을 일삼는 수령을 나무라는 소리이다. 2)에서는 아무 하는일 없이 無爲徒食하는 아전이나 서리 등을 빗대어 고발하고 있는데 세상 풍속이 어지러워 젊은 사람이 어른에게 함부로 하고 노름이나 일삼는 풍속을 고쳐야 훌륭한 관장이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내용이다. 3), 4), 5)는 삼정의 문란에 관한 내용이다. 삼정은 전정, 군정, 환곡에 대한 것으로 전정은 토지에 부과하는 田稅요, 군정은 군역을 대신물리는 軍布요, 환곡은 가난한 백성에게 쌀을 빌려 주었다가 가을에 이자를 붙여 거둬 들이는 것으로 삼정이 문란해지면서 조선후기에 그 폐단이 극에 달하였고 그로인한 백성의 고통은 더욱 커졌다. 처음에 환곡은 백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고 이를 대출하여 이익을 도모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는데 후에 점차 폐단이 생겨나면서 쥐가 곡식을 축낸다고 핑계하고 耗穀을 가산하고 봄에 환곡을 나누어 줄 때에는 작은 斗量을 사용하였다. 급기야는 환곡을 받아가지 않자 강제로 맡겨 그 세를 물게 하기가 일쑤였고 이를 갚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야간에 도망을 가거나 재산을 팔아 고향을 떠나버려 이농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세보는 삼정 가운데 환곡의 비리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다. 3)은 탐학수령이 자신의 이익을 챙겨 자꾸만 재산을 늘려 가는 세태를 말하였고 4)는 환곡으로 받아온 쌀이 집에 와서 다시 헤아려 보면 그 양이 반밖에 되지 않거나 사람이 먹지 못하는 겨를 끼어 넣어 주기가 일쑤라는 내용이다. 5)는 가을에 추수가 끝나서 환곡미를 갚기위해 농사 지은 전부를

이고지고 가져가는 농민의 모습인데 막상 갠으려고 하면 터무니 없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다음 해로 다시 넘겨지는 모습이다. 세보는 이런 탐학과 부패는 수령과 아전들이 자신들의 분수를 지키지 못하는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 1) 그릇타도 허련이와 무변슈령 주네듯쇼
인걸구걸 허여온 원 치민선정 정성적다
엇지타 스롬마다 물욕이 먼저. (풍아 303)
- 2) 유한헌 저창곡을 가작도 분슈업다
만석이 만냥이요 천석의 천냥이라
아마도 선치는 엽평 두즈인가. (풍아 325)

1) 2)는 자신의 본분과 직분에 뜻이 없고 탐욕만으로 일관된 수령들을 비판하는 목소리인데 세보는 이런 분수를 지키지 못하는 과욕이 탐학을 낳고 사회 기강이 문란해져 왕조가 기울어 가는 것으로 보고 이를 시정함이 곧 질서를 바로 잡는 길임을 토로하고 있다. 연암 박지원도 「예덕선생전」에서 “대저 하늘의 만물이 나올 때 저마다 命을 타고난 것이니 원망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새우젓을 먹으면 달같이 생각나고 갈포옷을 입고서 모시옷을 부러워하면 천하가 이 때부터 大亂에 이를 것이고 농민이 땅에서 일어나면 농토가 황폐해질 것이다.”라고 말하여 인간이 저마다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탐욕스럽게 되면 사회가 혼란을 초래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상하층 계급이나 혹은 부농들에 의해 농토가 겸병되어 농민이 농사에서 이탈되고 농토가 황폐될지도 모르는 위기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³⁵⁾ 입으로는 도덕적인 생활을 부르짖으면서도 실제 생활은 그렇지 못한 위선적 양반들의 윤리적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데 세보의 작품에서도

35) 박기수, “박지원 문학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84, PP.48-49.

박지원의 이런 의식의 흐름을 찾아볼 수 있다. 세보는 사대부이면서도 다산처럼 농민의 입장에서 수탈당하는 농민의 고통을 다수에 걸쳐 쓰고 있다. 이를 통해 현실을 바라보는 작가의 의식과 농민 사이의 객관적인 거리가 제거되고 세보가 바란 현실인식의 지향점이 드러난다.

4 .주변장르와의 관계

조선후기 시조의 창작 담당계층이 평민에게로 옮겨갔고 시조가 거의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던 시기에 사대부이면서도 순국문으로 시조를 창작하였던 세보의 창작 의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자각을 준다. 19세기에 시조가 발달되었다는 것은 각 가집의 표현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니 19세기 그것도 후반기에 와서 엮어진 가집들을 보면 종장 말구를 생략하는 것이 많이 보이는데 「남훈태평가」 「詩餘」 「가요」 「시철가」 등에서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다. 「남훈태평가」인 경우는 한 작품을 3장으로 구분하여 장과 장사이에 句讀點을 찍어 표현하였으며 종장 말구를 한결같이 생략하고 있다. 그리고 綴字도 표음 위주로 되어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가집은 음악적인 실용성을 중요시한 편찬이었다고 하겠으며 그렇다고 한다면 가곡보다는 시조를 대상으로 편찬한 가집이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들은 순국문으로 엮어져 있어 시조 창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대중성을 띠게 된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세보가 조선후기 시조의 쇠퇴기에 다른 장르가 아닌 시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의 입지를 가장 분명하게 표방해 줄 수 있는 장르라 여겼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이전의 평시조의 내용을 훨씬 벗어난 자신의 일상생활과 주변의 일들을 소재로 삼음으로써 내용의 폭을 한층 크게 확대시켜 이후에 이어지는 개화기 시조의 양상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개화기 시조는 시조창 방식으로

되었다는 점에서 「남훈태평가」에 실린 작품들을 계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세보의 시조 몇 편은 개화기 시조의 교술적 이념지향이 강한 성격과 남훈태평가 계열의 통속적인 애정타령의 내용 모두를 받아들여 개화기 가사로 연결시켜 주는 교량적 단계에 있는 양상을 보이는 한편, 판소리나 민요 등에서 사용되는 어투나 표현 양식을 드러내고 있다.

저빅성의 거동보쇼 지고시키고 드러와서
한섬 쌀을 밧치라면 두 섬 쌀리 부득이라
약간 농스 지엿슨들 그 무엇슬 먹주하리. (풍아 296)

그럿타도 흥련이와 무변슈령 주네듯쇼
인걸구걸 흥여온 원 치민선경 정성적다
엇지타 슝롬마다 물욕이 먼저. (풍아 303)

우리 싱이 드러보쇼 산의 올라 산전파고
들의 내려 슈답가러 풍한서습 지은 농스
지금의 동중니중은 무삼일고. (풍아 307)

편월리 당두흥니 저 슈령들 거동보쇼
허든일 후회한들 임갈굴정 어이할가
그중의 탐장불치야 일너 무삼. (풍아 331)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수령과 아전들의 횡포와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을 “저 빅성의 거동보쇼” “주네듯쇼” “우리 싱이 드러보쇼”와 같이 민요나 판소리 사설처럼 늘어놓고 있다. 사실 조선후기에 오면서 판소리 광대들의 지위가 상승되면서 그 이전에 가객들이 담당하던 역할까지 판소리 광대들에게 넘어감으로써 이때 그들에게 장르 混淆 현상이 나타나고, 作詩에 말전넌이 등장하여 이세보도 이

런 영향을 받은 듯하다. 또한 다음의 작품에서 개화기 가사의 장르적 특성과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정여슈영 일를 삼고 방퍼 칩긱 도속호쇼
광음무정 지나가면 유취만년 난세로다
아마도 방퍼칩긱은 비단슈령. (풍아 313)

가지업는 남기업고 장원 업는 집이업다
부모 업는 주손 업고 나라 업는 도정 업다
엇지타 타항의 나훈노 의지업서. (신도일록81)

일구월심 밋친 한은 부모동싱 싱각이라
한숨쉬다 눈물지고 눈물지다 한숨이라
두어라 슈신령괴후야 이티티왕. (신도일록 90)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조의 종장 첫구를 유지하면서도 4,4조로 이루어진 가사형식을 고수함으로써 개화기 신문에 발표된 가사의 형태와 유사함을 보인다.

그럿타도 흐련이와 무변슈령 주네듯쇼
인걸구걸 흐여온 윈 치민선쟁 정성적다
엇지타 스펀마다 물욕이 먼져.(풍아 303)

위의 작품은 관직에 오르기 위하여 애걸구걸하여 겨우 자리를 얻었으나 막상 지위를 얻고나서 선치는 고사하고 탐학만을 일삼는 내용이다. 다음의 개화기 가사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의 작품을 찾아 볼 수 있다.

렴치업다 더취들은 근근싱애 흐눈집에

여간전곡 도적맞고 심명까지 살해되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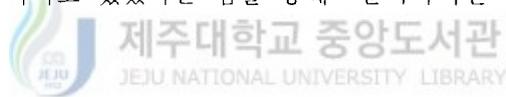
참혹홀스 더경상을 제눈으로 보면서도

디방관리 흡수하다

「시스평론 窮廬悲嘆 제5연」 대한매일신보 1908.11.27

외세에 아부하여 얻은 지위를 탐학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외세에 침탈당한 손실을 민중들에게 되돌려 수탈하기도 했다.³⁶⁾ 세보의 시조와 개화기 가사 내용의 차이는 세보의 시조에서 비난의 대상이 내부 권력세력에 아첨하는 부패한 관리상이라면 시스평론의 비판 대상은 외세와 결탁하여 권력을 얻고자 하는 권력을 쥔 세력이라는 점에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유사함을 보인다.

세보의 시조 작품에서는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한 전대의 시조양식을 계승하여 자신의 입지를 표현하고 또한 당대에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던 판소리.민요의 형태를 흡수하여 작품화 함과 동시에 개화기 가사에 나타나는 고정된 율격의 성격까지 담아냄으로써 시대를 이어주는 교량적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고 있다. 개화기 가사에 나타나는 고정적인 율격의 사용과 현실인식에 대한 비판내용이 이미 그 이전에 준비되고 있었다는 점을 통해 문학사적인 면에서 그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다.



36) 장성진, "개화기 가사의 서술구조와 현실인식", 박사학위논문, 충북대, 1991, P.157.

IV. 대상 인식

1. 강호인식

조선조 개국 당시 15세기 부터 19세기까지 조선조 사대부들이 자연을 바라본 강호인식은 유교이념을 확고히 하고 나아가 그들의 이상을 실현 시켜줄 수 있는 대상이 되기도 하였기에 사적인 의미에서의 강호인식을 통해 사대부들의 미의식과 세계관 문학작품에 반영된 현실과의 거리를 살펴 볼 수 있다.

국문학사상 강호인식은 대개 15세기 맹사성에게서 부터 비롯되어진 것으로 본다. 우리문학에 나타나는 강호인식의 양상은 주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³⁷⁾ 퇴계를 중심으로 하는 도산십이곡 계열과 율곡을 중심으로 하는 고산구곡가 계열 끝으로 고산을 중심으로 하는 어부사시사 계열을 들 수 있다. 도산십이곡 계열은 강호를 관념의 매개체로 인식함과 동시에 정치적인 현실을 떠나지 못하는 양상으로 파악하였고 고산 구곡가 계열은 閑美의 興인 吟詠性情으로, 어부사시사 계열은 風流의 興인 吟詠風月로 파악 하였다. 맹사성은 강호란 '한가함, 서늘함, 소일함, 춥지 않음을 주는 것' 이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였다. 결국 자연의 풍성함과 너그름 그 안에 사는 이의 흡족한 긍정이 합일된 조화의 세계로 봄으로써 자연이 스스로 즐거움을 전해주는 대상으로 여겼다. 이에 반해 황희는 강호를 바라보는 대상이 즐거움의 대상이 아닌 손수 그물을 기워야 하고 또 '뒷미히 엄긴 약'을 캐야 하는 일거리 속에서 잠깐 여유를 보여주는 것이라 보았다. 결국 맹사성의 경우 강호의 즐거움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황희의 즐거움은 생활에서 구하는

37) 朴基鉉, "강호인식의 한 양상", 『반교어문연구』 제1집, 반교어문학회, 1988, P.141.

것으로 보았다. 맹사성은 자연을 흥취의 대상으로 여겼지만 황희는 생활현장으로 인식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는데, 맹사성이 인식한 강호는 관념적이며 객관적 대상이 될 뿐이며 이처럼 강호를 즐거움의 대상이며 관념적인 대상으로 파악하는 경우 자연과의 합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리가 생기게 마련이다. 결국 모든 강호생활은 '역군은이샀다'라는 君恩으로 돌리게 되어 조정과 임금에게로 향한다. 황희가 사대부로서 강호에 은거한 시기는 이미 조선이 굳건한 자리를 굳힌 뒤였고 신분적인 위치를 고려해 보더라도 황희 자신이 직접 생활현장에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황희는 강호를 생활이 있는 곳으로 인식했으며 직접 몸으로 부딪혀야 하는 현실에서 강호의 즐거움이 얻어지는 것이라 인식하였기에 강호와 현실과의 거리가 제거 된다. 유교이념 사회에서 귀거래한 사대부가 강호를 인식함에 있어 객관적 관념적 대상으로써 그리고 흥취의 대상으로 자연을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16세기에는 전대의 시기와 별다른 차이는 없지만 강호인식의 다양성이 맹사성의 경우와 같이 지향하는 바가 임금과 조정에 있는 양상, 또는 강호에서 도의를 기뻐하고 심성을 기르는 자연의 규범성을 지향하는 양상, 강호는 흥취의 대상이며 즐거움의 대상으로 그 지향하는 바가 강호의 아름다움에 있는 양상으로 나타나 강호인식에 대한 다양성이 이루어진 시기이다.³⁸⁾ 16세기 대표적인 작가로 면앙정, 퇴계, 율곡, 고산, 강익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중 율곡과 강익의 단가삼결을 통하여 당시의 강호인식 양상을 살펴 보겠다. 율곡은 시의 본질을 '성정의 바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고 시의 효용으로 '심성의 도야'를 지적했다.³⁹⁾ 그는 자연을 매개로 하여 심성을 도야 하고자 했고, 서정을 규범화 함으로써 서정에 성정의 바름을

38) 呂基鉉, 앞의 논문, P.146.

39) 임형택, "16세기 사림과의 문학의식", 『한국 문학사의 시각』, 창작과 비평사, 1984, P.45.

기하려 했다. 율곡이 지은 高山九曲歌에는 개성적 형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관념적인 道學이 전면에서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처럼 율곡을 위시한 사림파의 문학이 현실과 인간을 멀리한 것으로 '현실주의에 대한 반대이며 인간성에 대한 부정'이라는 한계가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율곡은 隱遁과 忘世를 부정하였고, 퇴계와 마찬가지로 日用處에 나아가 시적 감동을 추구하였다. 즉 율곡은 隱逸을 구하지 않고, 자연을 매개로 하여 人情에 曲盡한 내용을 현실 속에서 담으려 노력하였다.⁴⁰⁾

조선조 사림파의 시가는 道學的인 것보다는 미학적인 것이었다. 율곡은 인위적인 기교에서 벗어나 자연을 매개하여 吟詠抒情 하였다. 이 서정의 핵심적 지향은 꾸미고 장식하지 않으며, 지나친 감정이입을 억제하는 것이다. 율곡은 정을 옮겨 마음을 방탕하게 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고산구곡가에서 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데서 묘취를 찾고, 古調의 옛 흥취를 향수하며, 지나친 감정을 억제하는 淡泊한 미의식이 강조하고 있다.⁴¹⁾

강익의 '단가삼결'에서 강호인식 양상과 현실과의 거리를 살펴볼 수 있다.

지란을 갖고라하야 호미를 두러 메고
전원을 도라보니 반이나마 형극이다
아하야 이 기음 묻다 먹여 히저물까 한다

'단가삼결'에 나타나는 자연은 즐길 대상도 아니며 객관적인 관조의 대상도 아니다. 김을 다 매지 못하고 반은 형극인 상태인 밭을 물이 지나며 채워주고 호

40) 허남춘, "사림파 시가에 나타난 자연관과 서정", 「국문학보」 제11집, 제주대학교국어국문학회, 1992, PP.18-19.

41) 허남춘, 앞의 논문, PP.21-22.

미를 들고 김을 매야만하는 현실상황이 드러난다. 이처럼 강호의 황폐함을 걱정하고 근심할 수 있는 것은 실제적인 생활에서만 가능하며 이로써 강호를 바라보는 입장과 현실과의 사이에 거리가 제거 되고 있다.

17세기에는 주로 고산을 중심으로 조존성, 박인로, 신계영, 김광옥, 이휘일 등에서 당시 강호인식의 한 단면을 찾아 볼 수 있다. 고산의 귀거래의 직접적인 동기는 丙子胡亂에 있었다고 보지만 사실 병자호란이 있기 이전에 이미 귀거래에 대한 동경은 늘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조선조 강호인들이 한결같이 귀거래를 부르짖었고 동경하여 현실세계와는 손을 끊고 홀로의 시계에 잠기는 경지를 바랐지만 현실과 완전히 손을 끊지는 못하였다. 형식적으로는 벼슬을 버리고 강호에 파묻혔으니 손을 끊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본심은 그러하지 못하였으며 經國濟民을 근본으로 삼은 유학자들인 경우 현실과 강호라는 두개의 공간을 분리하여 완전히 강호에 몰입할 수 없었다.⁴²⁾

水國의 고울이 드니 고기마다 소저 일다
달 드러라 달 드러라
萬頃澄波 의 슬쿠지 容與호자
至菊총 至菊총 於患臥
人間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 (漁父四時詞)

어부사시사의 일부분인데 마지막 구절에서 보듯이 '人間을 돌아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에서 처럼 현실과 멀리 떨어져 자연에 묻힌 심정을 그려내고 있지만 결국 고산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실에 뛰어 들었고 늘 理想은 자연을 동경하였지만 신념은 변할 수 없었다. 고산과 같은 시기에 이휘일은 '전가8곡'을 통하여

42) 최진원, 앞의 책, PP.33-34.

강호 생활에서 익히 알게 된 농민의 바램을 피력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힘의 일운 거시 머기도 마시로다'와 같이 스스로 농사를 지어 체득한 것이기에 실제적인 것이며 강호에 대해 객관적인 바라봄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존재 이휘일에게 강호는 즐길의 대상이 아니라 철저한 생활현장이 되고 있다.

여름날 더운적의 단짜히 부리로다
밭고랑 밭자흔니 쫄흔너 짜희듯네
어사와 粒粒辛苦 어너분이 알으실고 (其三夏)

보리밥 지어담고 도트릿 강을 흐여
비골논 농부들을 진시에 머겨스라
아히야 흥그릇 울너라 친히 맛바 보내리라 (其七午)

'전가8곡'의 일부분이다. 其三夏는 땀흘려 일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其七午에서는 보는바와 같이 비골논 농부들을 진시에 머겨스라 하는 것처럼 신분계층이 확실히 구분된 사회에서 자신의 신분과는 엄격히 다른 농민에 대한 인식이 그 이전 황희의 강호인식과 고산에게서 보다는 현실적 거리가 제거된 진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⁴³⁾

18세기에 와서 강호는 더이상 탐미의 대상도 관념의 매개체도 즐거움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아무리 양반일지라도 낮이면 일을 해야 하고 밤이면 글을 읽어야 하는 현실생활만이 있을 뿐이다. 위백규의 '농가구장'에서 이런 양상은 쉽게 확인된다. " 아침에 집을 나서서 농구를 갖추고 들에 나가 김을 매고, 점심 때 잠

43) 朴基鉉, 앞의 논문, P.152.

간 쉬고, 점심을 먹고나서 해질녁에 집에 돌아오기” 까지 여름의 하루 일과를 전6수와 후3수의 양분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임주탁의 견해⁴⁴⁾에서 보듯이 전통적인 문학관습에 따라 지어졌지만 그런 형식 속에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농가에 나타나는 강호는 어부나 도학자의 공간이 아니라 호미메고 김매어 땀흘리는 노동의 공간이 되고 있다. 또한 민요풍이나 사투리와 같은 일상적인 언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표현함으로써 그 興을 더하고 있다.

돌아가자 도라가자 희지 거단 도라가자
계변의 손발 씻고 흙의 메고 돌아올 제
어디서 우배 초석이 흙의 가자 비아논고. (夕歸)

위에서 보는 것처럼 노동현장이 실제 삶과 완전히 일치되고 있어서 기존의 자연생활을 한가롭게 바라보던 사대부 의식과는 달리 함께 땀흘려 일하는 노동의 주체로서 현실사회에서의 대립이 제거되고 있다. 실학이 품미하던 시기였고 실학자의 한사람이기도 했던 위백규에게 이런 강호 생활은 당연한 것이었다. 강호는 더이상 탐미의 대상도 관념의 매개체도 되고 있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 현실적인 상황을 보여 주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인 실상과 모순을 드러내지 못하였다는 지적⁴⁵⁾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전대에 비해 의식의 개방에 있어 진일보한 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18세기 시조에서 강호인식의 양상은 이제 더이상 자연이 객관적인 흥취의 대상이 될 수만은 없으며 삶의 한 단면이라는 변화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44) 임주탁, “위백규<농가>에 관한 연구”, 「관악어문연구」 제15집, 서울대 국어국문학, 1991.

45) 남정희, “18세기 사대부 시조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P.78.

19세기 강호인식은 18세기를 거치는 동안 그 시각이 더욱 현실인식의 한 부류로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연은 삶의 한 현상이며 생활의 수단이 되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노동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세보의 작품에서도 이런 특성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 1) 우후의 바라보니 산마다 폭포로다
각면 서원 아전 성천 포락 상심호소
상심은 흐련이와 묘당처분 뉘라 아오. (풍아 288)
- 2) 우리 싱익 들어보쇼 산의 올라 산전과고
들의 내려 슈답가러 풍한서습 지은 농스
지금의 동증니증은 무삼일고. (풍아 307)

1)은 비온 뒤 산마다 물이 폭포처럼 흐르고 황폐하게 변해버린 산과 농토를 바라보는 농민의 심정을 그리고 있다. 각 고을의 아전들에게 농민의 상심한 마음을 같이해야 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의정부에서 내리는 처분은 어찌될런지 모르겠다는 염려를 담고 있다. 2)는 발갈고 논갈며 풍한서습 다 이겨내고 지은 농사 지금에 와서 연대 채무는 무슨일이냐는 반문을 담은 내용이다. 1)에서 보듯이 세보가 유배지에서 직접 밭에 나가 농사를 짓고 김을 매는 노동현장에서 지냈다는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농촌의 한가함이나 여유로운 흥취를 그려내기 보다는 자신이 농민이 되어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과 똑같이 드러내 보이고 있다. 특히 2)인 경우 “우리 싱익 들어보쇼 산의 올라 산전과고” 라고 말하듯이 자신이 직접 밭이들과 화전을 일구듯이 노동의 현장을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19세기에 와서 자연은 이제 삶의 현장이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1)에서 보듯이 의

정부의 처분이 어떻게 될런지 그 누가 알겠느냐고 말을하고 있고 2)에서도 농사를 지은 사람과 이를 가져가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어 여전히 계급 분화의식은 남아 있다. 이처럼 세보 자신이 사대부의 한사람이면서도 자신이 농민의 입장이 되고 그들의 심정을 자신의 아픔으로 그려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 시대에 이미 황희나 강익, 이휘일, 위백규 등에게서 이어져 온 강호인식의 양상과 그 맥을 같이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1) 이념적 표상

본 장에서는 퇴계의 시에 나타나는 대상물에 대한 이념적 표상을 전범으로 하여 세보의 작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념적 표상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고 작가의 의식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퇴계의 이념적 표상은 <陶山六曲>전편에 잘 나타나 있는데 강호한정과 국정을 떠나 있으면서도 治國을 염려할 수 밖에 없었던 사대부적 이념을 찾아 볼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山前에 有臺하고 臺下에 流水 | 로다
 ㅼㅼ 만흔 굴머기난 어명 가명 흥거든
 엇더타 皎皎 白駒는 멀리 무음 흥논고.

이 작품은 도산육곡의 '誌' 가운데 제5수에 해당한다. 이 작품의 공간은 산과 물이 있는 전원이요, 퇴계가 벼슬을 버리고 물러나 심성을 닦고 학문을 탐구하던 고향이다. 그것은 곧 세속적 삶의 세계 특히 정치현실로부터 격절된 江湖에 해당한다. 갈매기와 흰 망아지(白駒)라는 두 종류의 대상이 나타나는데 산과 물 사이에 유유자적하며 노니는 갈매기떼는 강호의 삶에 완전히 동화된 존재의 표상으로

쓰이고 있다. 작자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로 세속의 풍진을 잊고 맑은 심성을 기르며 살아가고자 한다. 그러나 그가 타는 흰 망아지는 멀리 있는 세계 즉 國政이 이루어지는 현실정치의 공간을 때때로 생각한다. 이 작품에 쓰인 갈매기와 흰 망아지는 퇴계 자신의 의식 속에 존재하던 어렴풋한 갈등에 조응한다. 유학자들은 修己와 治人이라는 두가지 지표를 모두 달성하는 것을 최상의 과업으로 자임했다. 하지만 시대상황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는 물러가서 제 자신만이라도 깨끗하게 지킴이 옳다고 믿었다. 그런데 당대는 훈구집권세력과 사림층 사이의 정치적 대립이 크고 작은 파란을 일으키고 때때로 사회라는 파국으로까지 치달았던 시기이다. 퇴계는 이러한 기류로부터 벗어나 수기와 학문에 뜻을 두어 청정하게 살기를 선택했다. 그러나 이 선택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유학지식인인 한 修己.治人の 통합이라는 지표를 포기할 수는 없었으므로, 국정이 이루어지는 현실 정치의 세계에 대한 사념이 때때로 마음 한편에 떠오르고 있었다. 그런 뜻에서 이 작품의 갈매기와 白駒는 퇴계 자신의 두 가지 의식 지향이며, 그 가운데서 아직 펼쳐 내지 못한 후자를 그는 넉지시 나무라고 탄식하면서 한편으로는 연민을 느끼는 것이다.⁴⁶⁾ 퇴계에게서 보이는 이런 두 가지 인식 양상을 부분적으로나마 세보의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1) 이몸이 강호의 잊서 세스를 어이알니
그리노니 툇익요 심각노니 주참이라
언제나 적송조를 뜻츠 아도 벽곡. (풍아 204)
- 2) 텃상의 오작교 잇고 지상의 무슈현 다리

46) 김홍규, "고전 문학 교육과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 『대학의 국문학 교육』, 국어국문학회, 지식산업사, 1993, PP.188-189.

이 다리 저 다리중의 구양다리 나 죽겠다
차라리 창냥의 빠져서 굴원이나. (풍아 191)

3) 세우공산 저문 날의 슬피우는 저 촉국아
네 나라이 얼마관디 두 나뉜로 못가느니
갓득이 석은 간장 네 우름의 슈심 절노. (풍아 198)

1)은 자신이 유배지에 있는 몸이기 때문에 세상일을 어찌 알겠는가. 그려보
는게 태백이요, 생각하는게 자침이다. 언제쯤이면 적송자를 쫓아 아무 사심없이
선인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세상 일을 떠나 모든
것을 잊고 지내는 강호자연의 한가함을 그려내면서 태백과 자침을 생각하여 이들
을 쫓고자 하는 세보의 마음은 자연 속에 묻히려 하지만 묻히기 어려운 상황
에서 현실에 대한 미련을 읽어볼 수 있다. 2)는 천상에는 오작교가 있고 지상에는
무수한 다리가 있지만 이 다리 저 다리 중에 구양다리를 건넜으니 죽을 지경이다.
차라리 굴원처럼 창냥에나 빠져 버릴까한다는 내용으로 굴원의 일화를 들어 자신
의 결백을 주장하고자 한다. 비록 대상이 현실에 있는 다리를 건너 유배지에 오
게 되었지만 자신이 건넜던 다리를 굴원의 다리처럼 비유 함으로써 다리라는 대
상을 현실과 교통할 수 있는 매개체로 삼고있다. 건너지 말아야 할 현실을 건너
오게 되었으니 결국 자신은 자신이 바라지 않는 현실에 있게 되어 다리 건너편인
國政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미련을 떨쳐 버릴 수 없음을 읽을 수 있다. 3)은 가랑
비가 공산에 내리는데 슬피우는 두견새야. 네 나라가 여기서 얼마나 멀길래 두
날개를 가지고서도 못가느냐. 갓득이나 석은 간장 네 울음으로 더욱 탄다는 내용
이다. 저문 날 슬피우는 두견새를 쳐다보며 세보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
다. 두 날개를 가지고서도 갈 수 없는 두견의 상황과 돌아가고 싶은 현실이 있으

면서도 그 현실로의 복귀가 어려운 세보의 처지를 비유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세보는 자연 속에 묻혀 1)에서 보는 것처럼 자연을 즐기고, 안주하고자 하는 의식이 있는 반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충절과 왕에 대한 신의를 증명해 보이고자 하는 강한 이념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처럼 자연 속에 묻혀 지내면서도 갈수만 있다면 國政에 나아가고자 하는 강한 소망을 드러내는 것은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퇴계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순수하게 자연을 지향하면서도 정치세계를 동경하지 않을 수 없는 양면성을 지니는 양상은 16세기부터 계속 이어져 온 사대부들의 일관된 의식이기도 하다. 자연에 묻혀 있으면서도 국정에 대한 미련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修己와 治人을 지키고자했던 세보의 의식에서 조선조를 면면히 이어 온 강한 사대부적 이념을 찾아 볼 수 있다.

2) 미적 표상

19세기 시조사의 흐름은 18세기에 이미 예고하였던 것처럼 자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사실 19세기 시조사는 18세기와 달리 분리될 수 없는 연장선상에 놓여 있으며 18세기에 이미 정후를 보이던 사랑과 별리의 주제가 자연스럽게 평시조의 장르 속에 차용되고 사설시조와 평시조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넘나드는 상황을 보여준다. 또한 이미 18세기 시조한역의 경우도 그 리움이나 정서의 별리 뿐만 아니라 사대부적 관념에서부터 현실에 대한 인식, 농민적 삶에 대한 관심 등 내용의 폭이 넓어졌다.⁴⁷⁾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세보의 작품은 유배시조니 기행시조니 하는 명칭 자체가 특이할 뿐 대부분은 전대의 관습

47) 진재교, “홍양호의 시문학에 있어서 민족 정서의 수용과 형상화”,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 학교 1992.

에 의탁하며, 강호, 백구, 어옹, 무정한 백구, 성세우로 등의 어휘에서 보는 것처럼 매너리즘적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다고 하지만⁴⁸⁾ 이를 벗어나 자연을 매개로 興을 갖고 美를 추구하는 세보의 작품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초신이 무용하여 강호의 누엇쓰니
백구로 이웃삼고 어옹으로 화답이라
엇지타 씩결 세상의 말리 만어.(풍아 159)

이는 자신의 처지와 백구의 처지가 같아 서로 어울릴 수 있는 벗이 되어 자연 속에서 지내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백구로 이웃삼고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이 백구가 되기도 하고 백구가 자신의 처지가 되어 지내는 강호가도의미를 그리고 있다.

세보의 유배시조에 쓰인 동물과 식물, 자연물 등은 이런 미적 표상의 구현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간략히 살펴보겠다. 세보의 작품에 등장하는 대상으로는 학, 기러기, 갈매기, 빈대, 벼룩, 까마귀, 천리마 등이 등장한다. 이 중 기러기의 사용 빈도가 다른 대상에 비해 훨씬 우위를 차지한다. 역대 시조사전에 실린 작품 중 새에 관한 시조는 224수로 구체적인 鳥名이 사용되는 경우는 203수에 해당한다. 백구(50회), 기러기(43회), 두견(25회), 꿩(18회), 학(18회), 까마귀(17회), 봉황(8회) 등이 등장하고 있고⁴⁹⁾ 타시조에서도 백구와 기러기는 빈번히 사용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기러기는 흥안, 추안, 춘안 등으로 쓰고 있으며 각각 계절에 맞추어 달리 부른다. 일반적으로 기러기는 하늘과 지상을 왕래하며 서신을 전갈하는 신관의 의미로 사용 되었으며 의가 좋은 동물로 여겨지기 때

48) 고미숙, 앞의 논문, P.238.

49) 이종출, 『한국 고시가 연구』, 태학사, 1989.

문에 결혼식 등에 사용되기도 하고, 신의 신조를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동.서양에 걸쳐 행복한 결혼이나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 신조, 서열, 질서 등의 의미로도 사용된다.⁵⁰⁾ 세보의 작품에 등장하는 기러기는 어떤 장애도 없이 세상을 마음대로 날아 다닐 수 있는 동물로써 자신의 처지와 대조되는 자유분방함을 그려내고 있다. 세보의 작품들 중 미적 표상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동물은 학으로 여러 수에 걸쳐 표현되고 있다.

1) 벽공의 두렷한 달리 죽창의 도라들고
백학은 춤을 추어 칠현금을 지족한다
동자야 저 부어라 영산회상.(풍아 113)

2) 일간초당 지은후의 난만 화초 심어 두고
임안고 나 안즈니 삼척금이 한가허다
그중의 일쌍백학이야 일너 무삼. (풍아 95)

1)은 푸른 하늘에 두렷한 달이 죽창(竹窓)에 돌아들고 백학은 춤을 추어 칠현금(七絃琴)을 재촉한다. 동자야 피리를 불어라 영산 회상이나 즐겨보자 하는 내용이다. 푸른 하늘에 하얀 백학이 춤을 추는 모습과 이를 마주하여 앉아 소리를 듣는 세보의 여유로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2)는 한칸짜리 초당을 지어 놓고 爛漫하게 화초를 심어 두고 임과 내가 거문고 앞에 앉으니 삼척짜리 거문고가 너 너히 남는다. 그 중에 한쌍 백학이야 말해 무엇하리 하는 내용으로 한쌍의 백학을 바라보며 거문고를 타는 한가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본래 학은 고결한 선비 정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전부터 우리의 시가에 주로 사용되어오던 대상이기도 하다. 옛 선비들은 학의 고고함과 기상을 지니기 위해 평상시 입던 鶴창의는

50) 『한국문화 상징 사전』, 동아출판사, 1992, PP.103-105.

학의 모습을 본떠서 바탕은 흰색으로 깃과 소맷부리, 도련의 둘레를 검은 색으로 둘러 두루미처럼 깨끗하고 기품있는 선비의 기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한 영조 때 문관으로서는 堂上官은 구름과 학을 수놓은 雲鶴 흉배로 하고 堂下官은 白鶴 흉배를 하였다가 고종 8년에는 모두 학흉배로 고쳤는데 당상관은 쌍학배로 하고 당하관은 단학배로 하였다. 이와같이 학문을 숭상하는 문인과 학자를 상징하는 동물로 두루 사용이 되었는데 세보는 학을 마주하여 고고함과 기품을 그려내면서 자연에 몰입하는 유유자적한 삶을 그려내고 있다.

1) 나는 꽃보고 말하고 꽃은 날보고 당곳 옷네
 웃고 말하는 중의 나와 꽃이 갓쳐웨라
 아마도 탐화광점은 나뿐인가.(풍아 89)

2) 월하의 술 먹고 저 잔을 들고 술을 보니
 반남아 간데 없다 티백이 온가 의심하여
 다시금 쳐다보니 반월일시 분명하다. (시가.단.8)

1)은 나는 꽃을 보고 말하고, 꽃은 날보고 방곳 옷네. 웃고 말하는 가운데 나와 꽃이 가까워졌다. 아마도 꽃을 보며 정신을 잃는 나비는 나뿐인가 하노라 하는 내용이다. 작자의 감정이입이 꽃으로 이어져 하나가 되는 경지를 그리고 있다. 꽃에 정신을 빼앗긴 채 말을 하는 작자는 꽃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간주함으로써, 꽃이 사랑하는 여인이 될 수 있고, 자신이 오히려 꽃을 사랑하는 나비가 되는 몰아일체의 경지를 나타낸다. 2)는 달빛 아래서 술 마시다 잔을 쳐다보니 반만 남아 있고 간 데 없다. 태백이 왔다 갔나 의심하여 다시 보니 잔 속에는 반달이 떠 있는게 분명하다는 내용이다. 비어 있는 듯 하면서도 잔에 가득하고 술이

가득 하면서도 반달로 인해 비어 있는 듯한 자연미를 찾아 볼 수 있다. 자연을 바라보는 작자의 시각은 자연을 멀리 떨어진 존재인 것처럼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듯 하면서도 결국은 자연 속에 몰입되어 하나가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세보는 위의 작품에서 보듯이 백학이나 꽃, 반달을 통하여 자연 속에서 자연의 일부가 되고 자연의 일부가 자신의 일부가 되는 미적 표상을 보여주고 있다.

보리나 빈대 등 몇가지의 대상에서 현실의 어려움을 그려내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연물의 평범한 대상들을 통해 과거의 신분적인 위치와 삶의 모습을 표출하면서도 세속의 찌든 삶에 결코 동조하지 않으려는 여유로움을 토로한다. 자연 속에서 자신이 자연의 일부가 되고 자연의 일부가 자신의 일부가 되는 모습이 세보 작품이 나타나는 미적 표현의 의의라 할 수 있겠다.

3) 풍류적 표상

세보의 시조에서 특히 사대부의 풍류적 표상을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애정, 세태류에 속하는 작품군들이다. 조선조 전기에는 사대부들이 有名氏로 애정시조를 짓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세보는 무려 104수에 이르는 애정, 세태시조를 지었고 연군의 정까지 포함 시키고 있다. 본장에서는 애정, 세태시조에 나타나는 풍류적 표상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세보의 애정시조 특징은 감정의 지나친 발산이나 노골적인 표현이 이루어진 것보다는 애정의 감정을 승화시켜 속되지 않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 1) 꽃지 곱다히도 단계 아미 꽃치로다
 색고 췌 색그면 못 색그리 업건마는

지금의 제아니 썩고서 쏘더러만. (풍아 350)

2) 남의 입 거러두고 속 물나 쓰는이와
정든 입 이별하고 보고싶퍼 그린 익를
아마도 분수흐면 그린 익가 나오련이.(풍아 139)

3) 청턴의 쓴 기력아 게 잠간 머무러라
넉 한말 드러다가 입 계신데 전할소냐
설월스창흐의 던던반축 흐드라고. (풍아 371)

4) 풍류조약시의 판말 흐는 그 슝과
삼경축흐세우중의 술취추 가는 입은
아마도 다시 보면 정 어려워. (풍아 112)

5) 스랑타 이별이요 이별타 상봉이라
상스고 상스고흐니 상스인스 상스인을
아마도 청춘의 만은 이별 늣기도 먼저. (풍아 367)

6) 친불여불친인가 불친불여친이런가
친하고 유신흐면 불친불여친이연만
아마도 친하고 무신흐면 친불여불친.(풍아 100)

1)은 꽃이 아무리 곱다해도 붉은 계수나무 아래 꽃이라 꺾고 또 꺾으면 못 꺾
으리 없건만은 제가 아니 꺾고서 꽃더러만 탓을 한다는 내용이다. 2)에서도 1)에
서와 마찬가지로 남모르게 남의 입을 사모하여 애달픈 것과 정든 입을 이별하여
보고 싶어하는 애정 중 차라리 이별하여 그리는 애가 낫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보는 바와같이 세보의 애정시조는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감정을 우회하여 표현하
는 절제된 비의식을 보인다. 실제적인 입을 만나 이루어지는 애정 보다는 마음에
고려두고 사모하는 애정 즉 관념적인 애정 표현이 오히려 더 강한 님에 대한 집

착을 드러내고 있다. 3)은 푸른 하늘에 나는 기러기야 거기 잠잠 멈추어라. 내
 말 한마디 듣고 임 계신데 전해주렴. 눈내린 紗窓아래서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마음으로만 님을 그리며 애태우는 사모의 정을 그리고 있다.
 인간의 병중에 가장 치료하기 힘든 병이 相思이며 이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만
 해결이 가능한 병이다. 이처럼 마음에 새기고 괴로워 하면서도 지나친 감정의 폭
 발이나 노출을 보이지 않고 절제된 감정의 묘사만이 남아있다. 4)는 풍류가 무르
 익어갈 때 다른 말을 하는 사람과 삼경 촛불아래 마주앉아 술마시고 밖에 내리는
 가랑비 속으로 가는 임은 다시 보면 정주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興이 무르익어
 갈때 자리에 맞지 않게 다른 말을 하는 사람과 비가 내리는데 삼경이 다되어 술
 취한 채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다시 보드라도 정들기 어렵다는 세보의 심경 표
 현을 통해 세보 자신이 興을 알고 있는 풍류객이었음을 알 수 있다. 5)는 사랑
 하다가도 이별하기도 하고, 이별했다가도 상봉하기도 하는 구나. 相思苦 相思苦
 하니 相思人이 相思人을 생각하는구나. 아마도 짧은 시절 많은 이별이 더 먼저
 늙게 하는것 같다는 내용이다. 님을 사모하여 생긴 병은 님이 있어야만 나을 수
 있고, 상사병을 앓은 사람만이 상사병의 괴로움을 알 수 있는 법이다. 결국, 相思
 로 인한 병은 님만이 알아 주기를 바라는 내용이다. 6)은 친한 것이 친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고, 친하지 않은 것이 친한 것보다 못한가. 친하면서도 신의가 있다면
 친하지 않은 것이 친한 것보다 못하겠만 아마도 친하면서도 신의가 없으면 친한
 것이 친하지 않은 것보다는 못하다는 내용이다. 친함에도 신의가 있어야 함을 강
 조하고 있다. 이 작품들은 언어를 세련되게 조탁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형태라기
 보다는 지극히 소박한 형태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며, 같은 글자나 어휘를 겹쳐 사
 용함으로써 말의 유희적 기능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세보의 애정시조와 세태시

조 등에 나타나는 풍류적 표상은 종전의 사대부 의식과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사회 전반에 확산된 애정세대의 양상을 받아들여 사대부로서는 기존에 보여주지 못했던 자신의 애정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면서도 노골적인 감정의 폭발은 절제하고 있다. 이처럼 이념이나 고정된 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의식의 개방을 통해 풍류객으로써의 삶을 엿볼 수 있게 한다.

2. 현실인식 양상

1) 복고적 현실인식

19세기 말 조선조 후기의 현실인식 양상은 이미 18세기부터 예고되어 오던 성치적 퇴조로 현실의 어려움이 다방면에서 노출되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세보는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두 가지 측면의 서로 다른 지향점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밝히고 있다. 그 하나가 비판적 현실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복고적 현실 인식이다. 비록 이 둘의 양상이 분리되어 다른 성격을 지니기는 하지만 각기 다른 양상을 통해 사회 변화를 이루고자 했던 점에서는 맥을 같이하고 있다.

복고적 현실인식에서 세보는 왕실의 한 사람인 사대부로서 현실의 어려움을 직시하였고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유교적 이념과 윤리를 제시하였다. 이는 일련의 사대부 시조와 소재만 다를 뿐 시정신상으로는 유사한 양상을 띤다.

- 1) 부모공덕 알나거든 혼정신성 일를삼고
유필유방 형실 닥거 불효 두즈 면허리라
아마도 양주방지보모은인가. (풍아 256)

- 2) 텃허만물중의 소롭이 웃듬이라

오륜을 다 모르고 의리의 못 죽으면
아마도 초싱후싱의 이름 두기 어려.(풍아 261)

- 3) 나라업는 번신보며 번신업는 나라본가
가련헌 저 백성을 포복갓치 사랑하면
아마도 타일선음이 조우순을.(풍아 302)

1)은 부모의 공덕을 알려면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잘하고 또한 나다니는 일을 함에 있어 가는 곳을 잘 알리면 불효는 면하게 되리라. 아마도 자식을 길러 보아야 부모의 마음을 알겠는가 하는 내용으로 오륜을 근거로한 유교적 윤리 의식을 밑바탕에 두고 교시하고 명령하듯이 가르치는 어조에서 벗어나 편안한 일상을 별어려움이나 부담없이 나열하고 있다. 2)는 천하만물 중에 사람이 으뜸이고 오륜을 모르고 의리에 못 죽으면 아마도 이생이나 내생에서도 이름을 남기기 어려우리라는 내용이다. 이는 오륜을 중시하여 이를 지켜야 한다는 의식에서는 위의 시조 1)과 그 내용이 유사하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오륜은 이미 사회 전반적인 흐름에서 사회윤리로써의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이를 다시 거론하는 세보의 의도는 다분히 사회개혁의 의지를 이곳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은 나라 없는 관찰사를 본 적이 있으며 관찰사 없는 나라를 본 적이 있는가. 가련한 저 백성을 어린애와 같이 사랑하면 후일 선조의 음덕이 자손에게 까지 미칠 것이라는 내용으로 관찰사들에게 어질고 선한 善治의 중요함을 일깨우고 있다. 사실 위의 작품들의 공통점은 무엇 보다도 시의 대상이 되는 내용들이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사실들이고 많은 시조 작품에서 자주 접할 수 있었던 점들이다. 오륜의 관념은 교화시키기 이전에 이미 지키고 실현 되어야 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이며 현실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심점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작품들은 작품 이전에 이미 유교적 이념이 내면 주제로 선정되어 있고 그 진술상태에 있어 3행중 어느 한 줄, 혹은 두 줄에 각본에 따르듯이 주제를 나열해 놓고 있다. 서정의 표출을 통해서 여과되지 않고 나오는 관념들은 어찌피 이런 창작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고 이런 면에 있어 세보는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온 '訓民歌'나 '道德歌'류의 시조와 내용과 소재만이 다를 뿐 그 지향점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⁵¹⁾

- 1) 밤공소가 엷섯거든 일고삼장 무슨 잠고
관문 밧게 소관 아전 등디혀여 원망이라
두어라 거가의 못헌 숙흥거관인들. (풍아 336)
- 2) 무시풍악 파이말고 포진턴물 심각호쇼
관청식 육고조눔 거헝호며 원망일다
아마도 논인어쥬식지원가. (풍아 344)

1)은 밤공사도 없었는데 게으름을 피우며 늦게까지 잠을 자는 수령을 나무라고 있다. 아전들은 이미 문앞에 등대하여 기다리고 있는데도 잠에서 깨지 못하고 있으니 원망 뿐이고 집에서 하지 못한 일을 밖에서 할 수 있겠느냐는 내용이다. 2)는 때없이 풍악을 일삼고 물건 아까운 줄 모르고 함부로 써대고 있어 관청색과 육고자가 일을 거행하면서도 원망한다. 이는 관리자들의 권리 남용으로 인해 선치를 하지 못하여 아랫 사람들로 부터 존경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경계하여 이르고 있다. 실제로 이런 특정 상황이 있어서 비판한다기 보다는 있음직한 사실을 경계하게 함으로써 세보 자신이 수령이나 아전들의 사소한 일까지 관심을 가지

51) 박노준, "이세보 시조의 분 의식과 정서표출의 두 국면", 『동양학』 제20집, 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소, 1990, P.99.

고 있었던 면을 보여준다. 사실 세보는 사회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였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직분으로 수령을 포함한 그 이하의 관리직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민중의 생활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수령과 그 이하의 관리직은 정치 구조상 최하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보가 이들의 직분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이들과 관계되는 기층 민중에 초점이 모아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 혁명을 꿈꾸지 않고 조선왕조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 하면서 내부에 혼재해 있는 비정을 광정하여 살기 좋은 세상을 건설코자 하는 개혁의 의지만이 가득 차 있다.⁵²⁾ 즉 세보가 바란 현실인식의 지향점은 지방 관아의 벼슬아치들이 마땅히 지키고 수행해야 할 직분을 원론적인 입장에서 천명한 것인데 이는 시공을 초월하여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일이기도 하다. 유교적 명분을 내세우고 그 명분이 지켜지지 않아 극히 혼란한 현실을 제시하고 그러한 현실의 구제 방법으로 유교적 이념으로 사회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확신을 보인다. 또한 이런 현실을 초래한 대상들도 고위직 관리가 아니라 지방 관아의 벼슬아치들이며 그들을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체제 혁명적인 개혁이라기보다는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즉 官風의 혁신을 통한 사직의 동요를 막고 억압받는 서민들을 구원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현실인식의 접근 방법이 재래적인 방법을 답습하여 관념적으로 진술되어 있어 세보가 보수적인 인생관과 세계관에서 탈피하지 못하였다는 지적⁵³⁾을 받기도 하지만 이는 세보가 사대부라는 신분적 입장에서 극복할 수 없었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복고적 현실인식에서 추구하는 세보의 궁극적인 지향은 왕가의 한 사람으로써 비록 이미 기울어버린 왕조이지만 과거처럼 부흥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고자 한 데 있다. 유교적 이념이 거의 그 명맥을 찾아 불

52) 박노준, 앞의 논문, P. 107.

53) 박노준, 앞의 논문, P. 115.

수 없을만큼 퇴조해 버렸지만 과거로의 복귀를 위한 윤리 도덕적인 이념의 재무장이 현실 극복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2) 비판적 현실인식

세보의 작품이 비록 시조라는 장르를 선택하여 창작하였다는 점에서 현실인식의 범위가 다산의 경우처럼 치밀하게 각 분야를 섭렵하지는 못하였지만 소재의 다양함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물인식에 대한 탁월함을 인정할 만하다. 현실인식의 양상에서 유교적 이념의 명분을 중시하는 복고적 경향이 있긴 하지만, 있는 현실 그대로를 바라보고 더 이상 유교적 명분이 사회 기틀을 유지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비판적 현실인식을 담은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보가 말하고 있는 현실인식은 官에 의한 과중한 세금, 借用米로 상징되는 계층간의 불평등한 농촌현실, 이로 인해 비록 백곡이 풍성한 계절이 되어도 가난한 농부의 탄식이 사라지지 않는 농촌의 현실,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인해 밑으로 부터 흔들리는 농촌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다.



- 1) 저빅성의 거동보쇼 지고깃고 드러와서
한섬 쏠을 밧치라면 두 섬 쏠리 부득이라
약간 농수 지엿슨들 그 무엇슬 먹조하리.(풍아 296)
- 2) 우쑤을 어이후리 가련헌 저 빅성이
일기빅만 황당커든 황우일척 상의할가
아모리 이슈한들 피부돈의 무니후를. (풍아 323)
- 3) 각귀기가후여 보니 반도반미 황당후다
두섬이 열말되고 한섬이 닷말이라
무상헌 희식고조 엄장중치 못후신가. (풍아 295)

1)은 추수철이 되어 환곡미를 갚기 위하여 지고 이고 가져와도 막상 한 섬을 갚으려 하면 두 섬이 부족하여 빈곤의 악순환이 야기되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2)는 우속(牛糞을 범한자에게 물리는 벌금)을 어찌 하겠는가. 가련한 저 백성을 한 그릇의 쌀밥도 황당한데 黄牛 한 필 생각이나 하겠는가. 아무리 다른 곳으로 옮겨 가둔다 해도 가족이 없는 사람에게 털이 붙어 있겠는가 하는 내용으로 끼니도 잇기 어려운 사람에게 지나친 세금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 다. 3)은 환곡미를 받아들이고 각자 귀가하여 보니 두 섬이 한 섬되고 한 섬이 닷말 밖에 되지 않아 황당하다. 어찌하여 예의 법도를 모르는 담당자를 엄중하게 다스리지 못하는가 하는 내용이다. 환곡의 폐단은 이미 시대적 상황에서 살펴 본 것처럼 문란해서 정작 농민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농민의 목을 죄는 제도로 바뀌어버려 이를 담당하는 아전이나 수령만이 이속을 차리고 농민은 빈곤에 빈곤을 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위의 작품 1), 2)에서 보듯이 세보의 시에 나타나는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은 어떤 계기가 촉발이 되어 비롯되는 일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1),3)에서는 환곡미 2)에서는 우속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3행의 짧은 형식에 압축시켜 공격하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정서가 유발됨으로써 이를 통해 없는 듯이 숨어있는 존재가 적어도 문학적인 측면에서 부패한 봉건체제를 비판하고 고통받는 서민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 더 큰 효과를 획득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작품에서 보듯이 결국 현실의 문제는 자신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임을 인정한다.

1) 설상가상 더 어렵다 철 모르는 장교아전
 툴툴이 초저와서 육질미질 분슈업다

지금의 퇴년통편 다 어디 간고.(풍아 308)

- 2) 철업는 도서원아 묘당을 원망마라
팔도우탁 균동후면 이음양현 덕이라
국티평 민안낙은 뉘아니 심축후리.(풍아 289)

1)은 아전들의 비리로 인해 고통 받는 서민의 어려움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대전통편마저 무용지물임을 한탄하고 있다. 2)는 도서원들에게 의정부를 원망하지 말고 팔도에 비의 혜택이 균등하면 음양한 덕이라 여기라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종장에서 보는 것처럼 '국태평 민안낙은 뉘아니 심축후리'에서 보듯이 이 말은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음양한 덕이 고루 내려지는 편안한 세상이 아니기에 이런 세상을 바라는 세보의 심정이 역으로 비쳐졌다고 볼 수 있다. 현실의 어려움을 직시 하였고 이를 비판하였지만 결국 현재의 제도나 체제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임을 깨달아 현실 극복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다. 유교적 이념으로 해결하기에는 이미 시기를 놓쳐 버렸고 더 이상 사회 기틀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세보는 당시의 허물어져 가는 중세 질서를 인정하고 있으며,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의식이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을 고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 있어, 현실을 비판하고 고발한다는 차원에 머물러 대안 제시가 미흡하다는 점이 한계로 인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봉건적 이념이 더 이상 무효함을 피력하고 비판적, 민중적 시각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그 의의로 삼을 수 있다.

V . 결 론

이세보(1832-1895)는 철종과는 종친으로 친분이 두터웠다. 세보는 안동김씨 세도정권의 횡포를 논박하다 전라도 강진현 신지도에서 3년간의 유배생활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민의 아픔을 대신하고 현실의 어려움을 고발하는 작품을 다수 창작하였다. 세보가 살았던 19 세기는 17 세기부터 비롯된 토지제도의 문란, 농민의 피폐, 농촌사회의 붕괴, 관리의 수렴과 탐욕, 계속되는 당쟁과 사화 등으로 조선왕조의 기강이 흔들리고 국가 존립의 위기마저 흔들리는 혼란의 시기였다. 임. 병 양란 이후 집권층에 대한 극심한 좌절감과 패배감을 경험하였고 농촌경제의 파탄으로 이농현상의 심화를 초래했다. 농촌을 떠난 이들은 중소 도시로 몰려 상공업을 주도하는 새로운 계층을 형성함으로써 19세기 예술사를 주도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내부적인 변화는 국내에만 국한된 현상이라기보다 전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였다. 전세계적으로 17.18세기는 세계적인 기후 변동으로 가뭄, 수해, 냉해가 극심하여 곡물 생산량의 감소를 가져왔고, 인구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19세기는 이미 시조가 쇠퇴의 길에 접어 들었고 사대부시조가 창의력이 고갈되었다는 평을 받기에 이르렀으나 세보와 조항의 작품을 통해 시조장르가 쇠퇴하였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시조가 창출되었음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주제의 다양화와 주변장르와의 관계를 통해 후세문학과의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고 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세보가 다룬 주제의 다양화는 유배시조의 서정성과 충효시조의 교술성, 현실 비판의 시조까지 두루 섭렵하고 있다. 유배시조의 서정성에서는 서정적인 감정의 표출을 통해 군왕에 대한 믿음을 보이고 이를 통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일면을 보인다. 자연에 안주하고자 하는 은둔적 체념보다는 현실극복 출구를 찾고자 한 데 의의가 있다. 충효시조의 교술성은 개국당시 교훈시조나 그 이후의 도덕가 등에서 처럼 사람이 본디 지켜야 할 항목을 차례로 나열하여 꼭 지켜야 한다는 식의 서술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을 통한 충.효의 개념을 말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재인식이 현실을 이겨내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런 양상은 16세기 이후 사대부들이 지켜 온 일관된 이념을 보여주는 것으로, 속세를 떠나 고립된 유배지에서 끊임없이 정계로 복귀하기를 바라며 經國濟民을 신조로 삼은 사대부적 이념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현실비판의 시조에서는 다산 정약용의 현실인식 양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수령과 아전들의 비리를 폭로하고 농민의 수탈상을 고발하여 이들의 아픔을 대신 하고자 하였다. 다산이 한시로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였다면 세보는 한글 표기를 하고 있어 그 의의가 더욱 크다 하겠다. 타장르와의 관계에서는 개화기 가사에서 볼 수 있는 고정된 율격의 사용과 현실비판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종장 첫구의 사용에 있어 18.19세기 가객의 종장 첫구의 사용이 有意語인데 반해 전형적인 시조 종장 형태인 감탄어를 사용 함으로써 사대부 시조의 전형을 보여 주고자 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세보의 작품에 나타나는 대상인식은 18세기 시조사와 분리될 수 없는 연장선상에 놓여 있어, 사랑과 별리의 주제가 자연스럽게 평시조의 장르 속에 차용되고 사설시조와 평시조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넘나드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19세기 시조사의 새로운 구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양상으로 그리움의 정서 뿐만 아니라 사대부적 관념에서부터 현실에 대한 인식, 농민의 삶에 대한 관심 등 내용의 폭이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강호인식의 양상은 이념적·미적·풍류적 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념적 표상에서는 자연에 묻혀 있으면서도 국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修己와 治人을 지키고자 했던 사대부적 이념을 읽어 볼 수 있다. 퇴계의 시조 ‘陶山六曲’에 쓰인 갈매기와 망아지가 관직에 대한 갈망으로 사용 되는 것처럼 세보의 작품에 쓰인 갈매기, 두견새, 구양다리 등은 자신이 거주하는 현실과는 다른 국정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표상이 되고 있다. 미적 표상에서는 학과 달 등 자연물과 동·식물의 대상을 통해 자연과 동화되는 미의식을 보인다. 가득 부운 술잔을 쳐다보니 반만 남은 듯 하고 어찌된 일인가 하여 다시 보니 하늘에 뜬 반달 때문이었다는 표현을 통해 자신이 자연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자연이 자신의 일부가 되어 어울려 지내는 흥을 그리고 있다. 풍류적 표상은 사대부이면서도 풍류객의 절제된 애정·세태의 양상을 드러낸다. 풍류가 무르익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자리를 지키는 풍류객의 모습과 한 여인을 사모하여 앓는 상사병을 토로하며 절제된 애정의 묘미를 느끼게 한다.

현실인식 양상에서는 복고적 현실인식과 비판적 현실인식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적인 양상을 띤다. 복고적 현실인식의 양상에서는 유교적 명분을 내세우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 극히 혼란한 사회를 제시하고 그러한 현실의 구제 방법으로 유교적 이념을 강조 함으로써 사회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비판적 현실인식에서는 유교적 이념의 명분을 중시하는 복고적인 경향이 있지만 있는 현실 그대로를 바라 보았을 때 유교적 명분이 더 이상 사회 기틀을 유지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는 봉건적인 유교이념이 더 이상 무효함을 피력하고 있으며 비판적, 민중적 시각을 지니고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세보의 시조에 나타난 다양한 주제와 현실비판의

내용 그리고 4.4 조의 경직된 리듬의 사용 등이 이미 시조 장르의 쇠퇴기를 예고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20세기에 와서 시조 부흥운동을 시발점으로 민족 정서를 부활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이 운동의 계기를 마련해 준 기반이 18.19세기 사대부 시인들의 시조창작에서 비롯되었음을 고려해 볼 때 19세기 시조작가 중 특히 이세보의 공헌이 크다하지 않을 수 없다.

세보는 458수라는 다수의 작품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시조로 옮겨 놓아 시조짓기를 생활화하였다. 사대부이면서도 농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달랐고 비판적인 현실인식을 통해 사회 개혁을 일으켜 보고자 노력하였다. 조선조 후기라는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지를 분명히 하고 이를 작품화할 수 있었던 점은 무엇보다도 강직한 성품탓도 있겠지만 우리말을 사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기고 있다.



참 고 문 헌

1. 자 료

- 「이세보 시조집」, 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 연구소, 1985.
「조선상고사(상)」, 한국역사 연구회 정치사반 지음, 청년사.
「자료로 본 한국역사」, 일지사, 1984.
「與猶堂全書」, 증보여유당전서, 경인문화사, 1970.
「한국 문화 상징 사전」, 동아출판사, 1992.

2. 단행본

- 김대행 「시조유형론」, 이대출판, 1986.
김운경 「한국시가 문학의 유학 사상 연구」, 1983.
나종일 「세계사를 보는 시각과 방법」, 창작과 비평사, 1992.
박성의 「한국문학 배경」, 국문학 총서, 이우출판사, 1980.
풍우란 「중국철학사」, 정인재 역, 형설 출판사, 1982.
양순필 「제주 유배문학 연구」, 제주문화, 1992.
이상섭 「문학 연구의 방법」, 탐구당, 1980.
이종출 「한국 고시가 연구」, 태학사, 1989.
정재호 「한국 가사 문학론」, 집문당, 1982.
조규익 「조선조 시문집 서.발 연구」, 숭실대학교 출판부, 1988.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1986.
「역대시조사」, 민음사, 1982.
「한국문학 사상사 시론」, 지식산업사, 1986.
조윤제 「국문학 개설」, 동국문화사, 1962.

- 진동혁 「이세보 시조 연구」, 집문당, 1983.
- 최진원 「한국 고전시가의 형상성」, 성균관 대학교 대동문화 연구원.1988.
「국문학과 자연」, 성균관 대학교 출판부, 1986.

3. 논문집

- 고미숙 “19세기 시조의 전개 양상과 그 작품세계 연구”,박사학위논문, 고려대, 1993.
- 김인구 “이세보론”, 「고시조 작가론」, 백산출판사, 1986.
- 김홍규 “고전문학 교육과 역사적 이해의 원근법”, 「대학의 국문학 교육」, 지식산업사, 1993.
- 남정희 “18세기 사대부시조 연구”,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1994.
- 박기수 “박지원 문학 연구”,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84.
- 박길남 “이세보 유배시조 연구”, 「한남어문학」, 1992.
- 박노준 “이세보 시조의 분 의식과 정서 표출의 두 국면”, 「동양학」 제20집, 1990.
“안민영 시조의 기본 틀과 지향 세계”, 「고전문학연구」 제5집,1990.
- 박을수 “안민영론”, 「한국문학 작가론」, 형설출판사, 1977.
- 배영선 “개화기 가사의 사적 연구”,석사학위논문, 조선 대학교, 1983.
- 송재소 “다산 문학 연구”,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84.
- 여기현 “강호인식의 한 양상”, 「반교어문연구」 제1집, 반교어문학회, 1988.
- 임주탁 “위백규 농가에 관한 연구”, 「관악어문학」 제15집, 1990.
- 임형택 “16세기 사림파의 문학의식”, 「한국 문학사의 시각」, 창작과 비평사, 1984.
- 장성진 “개화기 가사의 서술구조와 현실인식”,박사학위논문, 충북대, 1991.
- 정봉기 “조선후기 가사에 나타난 민중의식에 대한 고찰”,석사학위논문,경남 대학교, 1985.

- 조규익 “삼죽 조황의 시조 연구”, 「승실어문」 제5집, 1988.
- 진덕규 “19세기 한국 전통사회의 변모와 민중의식”, 1982.
- 진재교 “홍양호의 시문학에 있어서 민족 정서의 수용과 형상화”,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1992.
- 최동원 “19세기 시조의 시대적 성격”, 「고시조론」, 삼영사, 1980.
- 최상은 “연군가사의 짜임새와 미의식”, 「반교어문학연구」 제5집, 반교어문학회, 1994.
- 최재남 “시조 종결의 발화상황과 화자의 태도”, 「고전문학」 제4집, 고전문학 연구회, 1988.
- 허남춘 “사림과 시가에 나타난 자연관과 서정”, 「국문학보」 제11집, 제주 대학교국어국문학회, 1992.



ABSTRACT

Nan-Sug, Kim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Cheju National Universit

Lee Se Bo's was very close to king Chol Jong, as his relative. He was banished to Shinji-do in Jerlla Province for 3 years, while he was laying claim against the family power of Kim's. In addition to that he wrote a lot of stories exposing the realistic difficulties of the people.

The 19th century was a very confused time. The disorderly land system, the impoverished conditions of rural people, the breaking up of rural communities, the avarice of officers, and the continuing party rivalry and massacre of scholars made Chosun Dynasty unstable.

These changes were not only an internal condition but also the tendency of many places in the world at that time. There were the change of season which brought serious drought, flood damage, and cold-weather damage, which caused the decrease in grain production and a subsequent decrease in population in the 17th and 18th centuries.

Shijo was on the decline in the 19th century. The noble class regarded

Shijo as lacking in originality. But if we look closely at Sebo's Shijo, we can see its complexities. Sebo's Shijo bridged the past traditions with the present through various themes and his use of the Shijo in fiction and drama helped bridge differences between the genres.

Sebo wrote about his banishment from Sinji-do, loyalty and filial piety, and Shijos critical of life's hardships at that time. In his lyric Shijo written after he was banished he shows his belief in the king in Hanyang as the only person who could save him, trying to bridge over the situation between himself and Hanyang. It has the same the point the other banishment Shijo or traditional noble Shijo even though it was written in latter half of the Chosun Dynasty.

In his instructive loyalty Shijo, he speaks about loyalty and filial duty in his daily routine.

In his critical Shijo, he exposed the irrationality of the Chieftain and the Ajeon(a petty town official of former times, whose job was permanent and hereditary and usually unsalaried). And he revealed what and how they were stealing from the farmers. He wanted to sacrifice himself for the people. Dasan revealed social irregularities through his use of Chinese rhyme, while Sebo did it in Korean. Because they are in Korean, Sebo's works are much more meaningful to us. His recognition of nature is represented ideologically, esthetically, and musically.

In his ideological Shijos we can see his ideas, he takes care of national

affairs, king and his people even though he is an ascetic, somewhat removed from society.

In his aesthetic Shijos, he harmonizes society with nature through his use of natural imagery.

In his lyric Shijos, he enjoys music and other entertainments even though he is from the noble class. By showing the realities of life through symbolic objects, a new view of social reality and a criticism of that reality come together. In his view of the reality of society, he presents a very confused society caused by the breaking up of Confucian ideas under the Confucian moral duty. And he wanted to recover the order of society by emphasizing Confucian ideas.

In his criticism of social reality, there is a tendency to put Confucian moral duty above Confucian idea, but he allows that this would be limited in its effect. His point is that the feudal Confucian idea is ineffectual. In the connection of the different parts of literature, he follows fixed rules of versification and gives a realistic criticism which we can see in lyric lines from the time of civilization.

It has an exclamation which is the typical type of last line in Shijo poetry. And it shows strong ideas of the noble class.